소년단

체육 소조원들의 하루

―평양 학생 소년 궁전에서―

륜 제 Ⅰ 급 운동을 련습하고 있는 예술 체조 소조원들.

평균대에서 기본 자세를 련습하고 있는 녀자 기계 체조 소조원들.

장갑 훈련하는 권투 소조 박 세춘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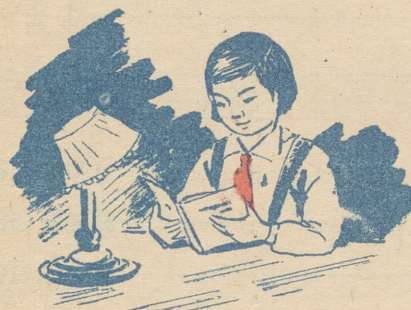
뒤로 수평 자세를 련습하고 있는
남자 기계 체조 소조원들.

아래에서 두 손 받아 치기 설명을 듣고 있는 배구 소조원들.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 년 잡 지

소 년 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	★	★	★

11

11

1964

11월중 주요 일지

1 일― 력사적인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 (1958)

3 일― 전국 반일 학생 투쟁 (광주 학생 사건) (1929)

7 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기념일 (1917)

15일―전국 어머니 대회 진행 (1961)

17일― 국제 학생절

19일― 용감하고 충직한 류 경수 동지 서거 (1958)

30일―조선 인민 혁명군 화전현 류스허즈 전투 (1938)

(차) (례)

표지 1면 —복습 시간 ...... 촬영 변 창선

《붉은기》호의 그 후 이야기

나는 금년 《소년단》 잡지 2호에서 동무들과 친해진 전기 기관차 《붉은기》 호예요.

나는 평양과 신의주 사이의 전기 철'길이 개통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 왔어요.

참 놀랍기도 하지요. 글쎄 우리가 평양과 신의주 사이의 전기 철'길 공사가 시작되였다는 이야기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통이 되였으니 말이지요. 어쩌면 500 리 전기 철도를 그렇게도 빠른 시일 내에 해 냈을가요? 너무도 궁금해서 개통된 철'길을 한 번 달려 보고 싶어 왔지요.

그래 나는 새 객차들을 달고 신의주를 향해 떠났어요. 내가 끄는 렬차 안에는 수 많은 손님들이 올라 탔어요. 마침 그 중에는 소년단원들도 있었어요. 나는 달리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붉은기〉호야! 〈전기화 속도〉라는 것이 뭐냐?》

한 소년단원이 문득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건 철'길을 빨리 놓은 공사의 속도를 말하는 것인데 인제 철'길로 달리면서 보면 잘 알게 될 거야.》

6 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한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한 마디로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달리면서 보이는 족족 말해 주려고 마음 먹었어요.

글쎄 500 리 철'길 우에 세운 탑주만 해도 4천 600 본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45 키로 메터의 전차선, 조가선, 궤전선을 늘이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이 밖에도 많은 큰 변전소들을 지었고 역 구내를 넓히였지요.

그리고 높은 산을 허물어 버리고 수 많은 굽은 철'길을 곧추 펴고 낡은 침목 대신 5만 정의 콩크리트 침목을 새로 갈아 대고 철'길터를 튼튼히 다지지 않았어요.

철'길에 심은 나무만 해도 7만여 그루나 된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일을 전기 철도 건설자들은 6 개월이란 짧은 시일에 해 냈으니 속도가 빠른 이야기야 더 해서 뭘 하겠어요. 정말 이 번의 《전기화 속도》란 놀랄만 한 것이예요.

일제 때 왜놈들은 우리 철도 건설자 아저씨들이 반 년 남짓한 사이에 한 이 500 리 철'길의 절반 밖에 안 되는 철원서 내금강까지의 116 키로 메터의 전기 철도를 놓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압니까? 14 년이 걸렸어요.

그러니 우리 나라 천리마 기수들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해 냈는가를 더 말해 뭘 하겠어요.

그러기 이 번 전기 철'길을 건설하면서 3 명의 로력 영웅을 비롯해서 3천 8백여 명의 수훈자들이 나왔어요.

《야! 이건 철'길이 아니고 꽃'길이로구나, 꽃방석을 걸어 가는 것만 같다.》

《꽃이 곱지. 저기 빨간 백일홍은 내가 심은 거야.》

《뭐? 벽동에 있는 네가 언제 여기 와서 꽃을 심었단 말이냐?》

벽동에 집이 있다는 소년단원들과 신의주에 있다는 소년단원들이 철'길에 심은 꽃밭을 보면서 이렇게 승강이질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들의 심정을 알아 차렸어요.

철'길 공사가 시작되여서였지요. 염주군 련곡 중학교 소년단원들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붉은 마음도 깃들게 하겠다》고 하면서 새 철'길 량 옆에 꽃밭을 꾸릴 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소년단원들에게 경쟁을 호소하였지요.

이 호소를 받은 전국의 소년단원 동무들은 꽃씨를 모아서 철'길 부근에 있는 학교들에 보냈으니 벽동에서 보낸 꽃씨인들 왜 없겠습니까.

나는 방긋방긋 웃는 갖가지 꽃들에서 전국의 소년단원 동무들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소년단원들이 한창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굴이다》라고 소리 쳤어요. 그러자 한 동무가 벌떡 일어 나 차창문을 닫는 것이 아니겠어요.

《넌 왜 갑자기 문을 닫니?》 내가 이렇게 묻자 그 동무는《인제 막 연기가 들어 올텐데 문을 안 닫고 어떻게 참으란 말이냐.》 하고 새침해 말하는 것이였어요.

《넌 머 내가 〈미가하〉 인줄 아니?》

내가 이렇게 대꾸하자 《정말 이 정신두…》 하고 그는 얼굴을 붉히지 않겠어요. 그는 다시 일어서 차창문을 열고 머리를 긁으며 앉았어요.

그 바람에 여기 저기서 웃음이 터졌어요.

《〈붉은기〉호야! 너희 조상은 언제부터 세상에 생겨 났니?》

태일이가 이렇게 묻는 것이였어요. 아마 그 앤 우리 전기 기관차의 력사가 알고 싶었던 모양이예요.

우리 조상들의 력사래야 간단하지요.

사람들이 석탄과 로력이 많이 들고 끄는 힘이 세지 못한 증기 대신 전기를 써 보자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130 년 전이였어요. 그래서 전기와 전자 기계로 레루 우를 움직이는 모형을 만들어 냈지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오늘과 같은 우리 전기 기관차가 태여난 것은 아니지요.

1875년에 비로소 3개의 차'간에 20명의 손님들을 태운 전기 기관차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리 전기 기관차의 첫 조상인가봐요.

《〈붉은기〉호야! 그 땐 우리 나라에도 그런 전기 기관차가 있었니?》

이 번엔 신의주에 있다는 동무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섭섭한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 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때 조선에는 전기 기관차는커녕 증기 기관차도 없었으니까요.

남의 나라들에서는 증기 기관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데 조선에서는 당나귀를 타고 다니고 수레를 끌고 다녔으니까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더니 그는 어쩐지 섭섭한듯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섭섭해 할 건 없어.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이야 우리 나라가 철도의 전기화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앞서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마디 하자 모두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것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몇 개 나라들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1962년 말과 1963년 초까지 전체 철도 가운데서 전기 철도가 차지하는 비률을 보면 불란서는 19.6%, 일본은 16.2%, 서부 독일은 14.6%, 영국은 8.5%, 미국은 0.9%, 인도는 겨우 0.7%밖에 되지 않는단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금년 안으로 평양-신성천 사이 철'길까지만 전기화 하면 21%의 철'길을 전기화 하거든요. 이제 한 3년 지나서 7개년 계획 말에 가면 우리 나라의 주요한 큰 철'길은 전기화가 대체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전체 철도의 절반을 전기화하게 된단다. 그러니 우리 나라가 이겨야!》 나는 엄지손'가락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소년단원들은 손'벽까지 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얘들아, 또 자랑스러운 것은 나(전기 기관차)도, 객차도 그리고 전기 철도도 모두다 조선 사람의 기술과 힘으로 만든 것이다.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조선 인민이 무엇인들 못 할 게 있겠니.》

나의 이 말에 소년단원들도 모두 가슴이 흐뭇해지는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기뻐 했어요.

정주와 로하 사이를 달리게 되면서부터 붉게 타던 저녁 노을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어둠이 나래를 펴기 시작했어요.

깊어 가는 밤과 함께 나는 어느덧 락원을 지나 마감역인 신의주로 질풍 같이 달렸어요.

나는 신의주 역에서 소년단원들과 헤여졌어요.

벽동 동무는 나의 손을 붙잡더니《〈붉은기〉호야, 우리 할아버지는 서울에 계신단다. 조국이 통일되면 난 네가 끄는 렬차를 타고 할아버지한테로 먼저 달려가겠다.》하고 말하는 것이였어요.

그 날은 오고야 말 거예요. 저주로운 분계선 표말을 뽑아 던지고 미국놈의 철갑모를 짓'이기며 내가 서울로, 부산으로 질풍처럼 달릴 그 날이 말이예요.

(이 말을 기억합시다)

《동무들! 피를 즐기는 흉악한 원쑤 미제 승냥이의 만행을 똑똑히 보시오.

간악한 미제 야수들을 우리의 손으로 철저히 멸살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동무들! 인민의 원쑤를 천백 배로 갚읍시다. 미제 승냥이들에게 죽음을!》

팔과 다리를 잃은 몸이지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원쑤놈들과 싸워 이기려는 불타는 마음으로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에 뛰여 들어가면서 남긴 공화국 영웅 강 호영 아저씨의 말입니다.

그는 싸워 이겼다

—함남도 고원군 신창 중학교 단에서—

조 병 권

11월 13일은 고원의 어린 애국자 서 강렴이가 원쑤들과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날입니다.

강렴의 고향 마을에서 배우며 자라는 신창 중학교 소년단원들은 이 날을 기념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 참가한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 재선 (서 강렴의 삼촌)
김 봉섭 (고원 빨찌산 대원)
서 재성 (〃)
정 윤화 (인민 학교 때 한 반에서 공부한 강렴이의 동무)
김 철순 (서 강렴과 함께 적후에서 공작하다가 놈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된 김 철진의 동생)
소년단 지도원 선생, 분단 지도원 선생들, 이 학교 소년단원들.

소년단 지도원 선생—오늘 우리들의 모임에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고원 빨찌산에서 용감히 싸우신 아저씨들과 서 강렴의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참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저씨들한테서 서 강렴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합시다.

서 재성 아저씨—1950년 가을입니다. 그 날이 아마 10월 10일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날 저녁 무렵 우리 고원 땅에도 미국놈들이 기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향 땅에 기여 든 원쑤놈들을 그 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군당에서는 로동당원들로서 빨찌산을 조직하였습니다.

강렴이 아버지도 나도 빨찌산에 참가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떠나는 날인데 강렴이는 자기도 기어이 빨찌산으로 가겠다고 못 견디게 졸라 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렴이더러 넌 아직 어린 몸이니까 집에 남아서 할머니를 돌보아 드리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전 학교에서도 소년단 분단 위원이였어요. 싸울 수 있어요. 미국놈들과 싸우겠어요.》 하면서 막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애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빨찌산에서 강렴이는 정찰병이 되였습니다.

맨 처음 강렴이는 성내리에 있는 적들의 형편을 알아 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강렴이는 허술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빌어 먹는 애처럼 가장하고 거리로 들어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미국놈들의 경계망을 뚫고 적후로 들어 간 강렴이는 놈들의 형편을 낱낱이 알아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강렴이가 정찰을 잘 해 왔기 때문에 우리 빨찌산은 11월 8일 수동 해방 전투에서 손실 하나 보지 않고 수동을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강렴이는 또 새로운 임무를 받게 되였습니다. 이 번에는 적들이 있는 거리에 들어 가서 소년단원들을 묶어 세워 가지고 놈들과 투쟁하는 일이였습니다.

김 철순 형님—그 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강렴 동무의 활동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때 나는 인민반 3 학년이였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이였습니다. 집 식구들이 모두 잠들었는데 밖에서 누가 조용히 우리 형님을 찾았습니다. 그 후 알고 보니 강렴 동무였습니다. 강렴 동무는 우리 형님을 불러 내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형님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형님은 이튿날 새벽에야 들어 왔습니다.

그 후에도 강렴 동무는 우리 집에 자주 오군 했는데 그 때마다 그는 우리 형님과 함께 밤을 새워 가면서 유격대에서 보내 준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원쑤놈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우리의 공화국 기'발은 다시 우리들의 머리 우에 휘날린다!》라는 삐라를 써 가지고 날이 새기 전에 그 길로 고원 시내로 들어 가군 했습니다. 이튿날 거리에 나가면 형님들이 쓴 글들이 담'벽과 전선주에 붙어 있군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은 얼마 못 싸우고 그만 놈들에게 붙들려 억울하게 총살 당했습니다. 그러나 총살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원쑤놈들에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빨찌산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김 봉섭 선생—정말 강렴 동무나 철진 동무는 다 용감한 동무들이였습니다. 놈들에게 붙들려 희생되는 날까지 빨찌산의 비

밀을 지켜 용감히 싸웠습니다.

고원 해방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였습니다. 강렴 동무는 또다시 중요한 정찰 임무를 맡고 고원 시내로 들어 왔다가 그만 불행하게도 놈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놈들은 강렴에게 빨찌산의 비밀을 대라고 련 사흘 동안 갖은 고문을 다 들여 댔지만 강렴이는 조금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악에 바친 원쑤놈들은 그를 꽁꽁 묶어 가지고 총살하려고 덕지강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가슴에 총을 들여 대는 미제 원쑤놈들을 향하여 《개놈들아! 나는 오늘 죽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총칼을 꽂는 수천 수만의 위대한 인민이 있다. 우리의 당이, 우리의 김 일성 장군님이 계신다…》라고 소리 높이 웨쳤습니다.

간악한 원쑤놈들은 끝내 강렴이를 총살하였습니다. 이렇게 강렴이는 열 여섯 살 어린 나이에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강렴이가 원쑤놈들의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 하는 것을 고원을 해방하고 나서 더욱 똑똑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놈들이 《경찰서》에서 우리 애국자들을 고문하면서 쓰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강렴이가 고문을 받으면서 놈들의 물음에 대답한 말을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씌여져 있었습니다.

《빨찌산이 어데 있느냐?》

《……》

《넌 어디서 사냐?》

《나는 조선에서 산다.》

《조선의 어디에 사냐?》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 백두산에 산다.》

《너 빨갱이지?》

《그렇다. 나는 빨갱이다. 빨갱이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빨찌산이 어디 있으며 얼마나 되는가?》

《그건 비밀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 그래 너희들 같으면 너희 놈들 몇 놈이 고원에 와 있는가고 묻는다면 그걸 말해 줄테냐!》

《우리가 만일 너를 놓아 주면 어디로 갈테냐?》

《나는 당장 너희 놈들을 죽이고 빨찌산으로 갈 것이다. 더 많은 미국놈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빨찌산 대원들은 이 문건을 보면서 더 용감히 싸워 꼭 그의 원쑤를 갚자고 주먹을 부르쥐였습니다.

서 재선 아저씨—그럼 이 번엔 제가 강렴이 자랄 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렴이는 매우 부지런한 애였습니다. 그 앤 벌써 동이 훤히 트면 일어 나서 마당을 쓸고, 꽃밭에 물을 주고 나서야 아침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 와서도 그 앤 쓸데 없는 장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좋아 해서 동무들과 공 차기는 잘 했지만 공부할 시간에는 어김 없이 들어 와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 가셔서 강렴이는 늙은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렴이는 짬이 생기면 물을 깃고, 나무'단을 부엌에 들여 드리고, 쌍둥이 누이동생을 돌보아 주면서 할머니의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할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강렴이는 어려서부터 고향 마을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원족을 갔다가도 좋은 꽃나무나 과실나무가 있으면 떠다가 마을에 심군했습니다. 가끔 동네 애들을 데리고 다천리에 가서 추리나 복숭아 나무를 떠다가 과실 나무가 없는 집에 심어 주기도 했습니다.

강렴이는 이런 애여서 마을 사람들은 그저 강렴이 같은 애가 없다고 말끝마다 칭찬하군 했습니다.

정 윤화 선생—강렴 동무는 학교 선생님들한테서도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강렴 동무는 인민 학교 때부터 나와 한 학급에서 공부했는데 바로 내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강렴이와 나와는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강렴 동무는 최우등생이였습니다. 강렴 동무는 뒤떨어진 동무들의 학습을 돕는 일에서도 언제나 앞장 섰습니다. 그 때 우리 반에 서 준선이라는 동무가 있었는데 그는 산수 과목을 몹시 어려워 했습니다. 이것을 안 강렴 동무는 매일 저녁 먼 준선 동무네 집에 찾아 가서 밤 늦도록 도와 주고야 돌아 오군 했습니다. 그는 동무를 돕는 데서도 진정으로 도와 주었습니다.

그 때는 아침마다 어느 반에서 숙제를 잘 해 왔는가 내기를 했는데 서로들 자기네 반이 이기겠다고 숙제 못 해 온 동무들이 있으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노트를 빌려 주어 베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강렴이가 반장인 3반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렴이네 반의 김 동철 동무가 숙제 검열을 당장 시작하게 되였는데 강렴 동무에게 숙제 학습장을 빌려 달라고 왔습니다. 동철 동무에게 학습장을 빌려 주어 베끼게 하면 강렴이네 반에서는 모두가 숙제를 해 왔기 때문에 경쟁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지만 강렴 동무는 숙제 학습장을 빌려 주지 않았습니다. 강렴이는 저녁에 공부가 다 끝난 후에 동철이를 만나서 하지 못한 숙제를 제 힘으로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강렴이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오갈 때 자기가 읽은 《빨찌산의 딸》이라는 아동단원들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동무들에게 들려 주군 했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은 그와 마주 앉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후에 그가 그처럼 용감히 싸울 수 있은 것도 학교와 소년단에서 그처럼 생활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박 승엽(소년단원)—우리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자 아저씨들한테서 강렴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원쑤놈들의 갖은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빨찌산의 비밀을 지켜 용감히 싸운 형님의 모범을 본 받겠습니다. 나는 형님의 그 정신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크면 인민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처럼 원쑤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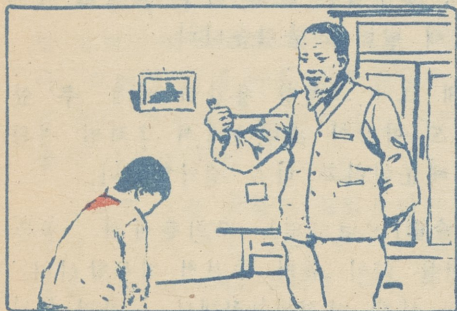
그리고 형님처럼 고향 마을을 사랑하고 웃어른을 존경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에 더 많은 과실 나무를 심어서 온갖 과실이 무르익는 아름다운 마을로 꾸리겠습니다.

황 금순(소년단원)—나는 강렴 오빠의 용감한 투쟁 정신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강렴 오빠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라면 목숨 바쳐 싸울 그런 용감한 조국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렴 오빠처럼 공부를 잘 하겠습니다. 우리 6 분단에는 섭섭하게도 최우등생이 없습니다. 오빠가 다니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들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나는 오빠처럼 열심히 공부하여 꼭 최우등생이 되겠습니다.

(례절 바른 사람이 됩시다)

집에서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례절

△아침과 저녁에 하는 인사

ㄱ. 아침에 자고 일어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ㄴ. 저녁에 잘 때에는《○○○, 안녕히 주무십시오.》하고 말만 바꾸어 인사합니다.

△학교에 갈 때와 돌아 왔을 때

ㄱ. 학교에 갈 때는《○○○,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학교에서 돌아 오면《○○○, 학교에 다녀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심부름을 가고 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인사를 합니다. (집안에 어른들이 여럿이 함께 계실 때는 제일 웃어른한테만 인사를 하면 된다.)

△집에 손님이 찾아 왔을 때

ㄱ. 밖에서 손님이 와 찾을 때는 문을 열고《들어 오십시오.》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찾아 온 손님이 무슨 일로 오셨는지를 알아 보고 친절히 돌봐 드려야 합니다.

ㄴ. 어른들을 찾아 오셨으면 곧 들어 와《○○○, 손님이 찾아 오셨습니다.》하고 알려 드리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들어 오시랍니다.》, 《들어 오세요.》, 《들어 오십시오.》하고, 그러나 어른들이 계시지 않을 때는《○○○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는《우리 ○○○는 직장에 나가셨습니다. 또는 ○○○에 가셨습니다.》하고 친절하게 대해 드려야 합니다. 곧 돌아 오실 때가 됐으면《곧 돌아 오실 겁니다. 불편하신 대로 들어 오셔서 기다리세요.》라고 하던가 또는《곧 돌아 오실텐데 들어 와 기다리시세요.》라고 말합니다.

—집에 들어 오신 손님에게는 모자나 옷, 외투 같은 것을 받아 걸어 드리고 자리나 의자를 내여 드립니다.

△손님이 돌아 가실 때는 일어 나서 따라 나오며《안녕히(편안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하고 인사를 합니다.

조국의 품에서 다섯 해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평양시 교대 부속 중학교 단 벽보 주필 리 일 동무에 대한 이야기—

고마운 조국

리 일 동무는 일본 도꾜에서 살다가 1960년 1월에 조국에 돌아 왔습니다.

그 때 그는 앓는 몸으로 돌아 왔었으므로 곧 병원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심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 밖에 모르는 세상인 일본 땅에서 리 일의 병은 좀처럼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닭알 장사를 하여 겨우 끼니를 이어 가면서도 리 일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변변치 않은 가장 집물마저 다 팔고 나중에는 집까지 팔았지만 리 일이는 끝내 병을 못 고치였습니다.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에서 이러한 리 일이를 그냥 둬 둘 리 없었습니다.

적십자 병원에 입원하였던 리 일이는 아주 건강한 몸이 되여 나왔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불깃불깃 살이 오른 자기의 얼굴을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 보며

(이 고마운 조국을 위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어린 가슴을 불태웠습니다.

인민반 3 학년에 입학한 그는 조국의 은혜를 갚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리 일이는 실로 알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서, 집에 돌아 오면 어머니와 동무들에게서 그는 쉴새 없이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동무들이 자주 찾아 와 도와 주었지만 리 일이는 그들의 신세만 오래 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동무들이 돌아 간 다음에도 잠자는 것마저 잊어 버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공부하는 모습을 마음 흐뭇이 지켜 보고 계시던 어머니는

《얘야, 인젠 자렴, 래일 학교에 가야지 않겠니.》 하고 타이르시였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인젠 앓지 않아요. 항상 동무들의 신세만 질 수 없잖아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리 일이는 날이 갈수록 《소년 신문》, 《소년단》 잡지를 들고 다니며 줄줄 읽는 동무들이 부러워났습니다.

우리 말이 서툰 리 일이는 책을 읽어도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말을 잘 할 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리 일이는 학교에서 공부가 끝난 뒤에도 짬만 있으면 우리 말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도 배우고 마을에 있는 아이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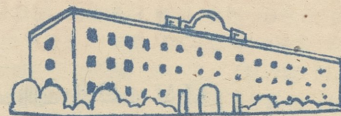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얼마 안 가서 우리 말 책을 줄줄 읽게 되였습니다.

우리 글을 알게 된 그는 쉽게 쓴 우리 나라의 력사 책이나, 지리 책도 읽었고 동화와 소설도 읽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면 우리 말로 어머니에게도 이야기해 보고 동무들에게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는 항일 빨찌산 투사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 누구에게나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하루는 자기 마을에 있는 인민반 1~2 학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형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주어요.》 하는 것이였습니다. 말이 서툴러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리 일은 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읽은 다음에는 또 아래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이것이 버릇처럼 되여 아이들은 리 일을 무척 따르게 되였습니다.

공부에서도 리 일은 다른 동무들을 따라 잡아 인민반 4 학년 때에는 마침내 최우등생이 되였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일본에 있을 때 리 일이는 집 생활도 곤난하였지만 자주 앓아서 학교에 변변히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조국의 품에 안겨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걱정 없는 리 일은 날마다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리 일아! 리 일아!》 하고 자기 이름을 다정히 불러 주는 동무들이 있고 아직 알지 못하고 있던 많은 것을 차근차근 배워 주는 학교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리 일은 누구보다 제일 일찌기 학교에 나와 깨끗이 교실 청소를 해 놓군 하였습니다. 그는 일요일에도 집에 있기가 갑갑하여 학교에 나왔습니다.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그 날 리 일은 분단 교실의 흔들리는 의자에 못을 박아 넣고 있었습니다.

이 때 2 층 쪽에서 《쟁가당》 하고 유리 깨지는듯 한 소리가 났습니다.

리 일은 흠칫 놀라 2 층으로 뛰여 올라 갔습니다. 가 보니 2 층으로 올라 가는 복도의 굽이돌이 높은 곳에 있는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여 유리 한 장이 깨여진 것이였습니다. 창문은 벗겨진 채 그냥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아서 혼자서는 키가 미치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리 일은 얼른 뛰여 가 학교 가까이에 있는 장 도욱 동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도욱이와 함께 교실에 뛰여 가 책상을 하나씩 가져다가 겹쳐 올려 놓고 그 우에 올라 가 창문 고리를 채워 놓았습니다.

그 이튿날, 리 일은 자기 집 책상 우에 바치개로 올려 놓았던 유리를 학교에 가져다 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벽보에 크게 소개되였습니다. 그 후에도 단 벽보에는 리 일을 칭찬한 글이 자주 났습니다.

이 때마다 리 일은

《얘들도 참, 그게 뭐 큰 일이라고 벽보에까지 냈어.》 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느덧 리 일이가 조국의 품에 안겨 네 해가 되였습니다. 분단 동무들은 지난 해 열성자 선거 때 공부 잘 하고 집단을 위해 언제나 힘 쓰는 리 일 동무를 단 위원으로 선거하였고, 단 위원회에서는 그를 단 벽보 주필로 뽑았습니다.

이 곳 학교에는 가끔 마을 아버지, 어머니들이 찾아 옵니다. 마을에서 인민반 어린 동생들을 언제나 친동생처럼 도와 주는 리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 주려고 찾아 오는 것이지요. 때로는 잃어 버렸던 돈 지갑을 가지고 기쁨에 넘쳐 찾아 와 아이들에게 《저 애 이름이 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때면 아이들은 《우리 단 벽보 주필 동무 말이예요? 리 일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리 일이는 이제 소년단원 동무들의 사랑 받는 벽보 주필이 되였습니다.

리 일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단 벽보를 편집하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단 벽보 주필 동무들을 꾸준히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날

마다 분단 위원장 동무들도 자주 만나 분단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때에 알아서는 단 벽보에 내기도 하고 속보에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벽보에는《어느 분단이 앞섰는가?》라는 란을 만들고 좋은 일을 제일 많이 한 분단을 칭찬해 주군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리 일이를 만나면 자기 분단 자랑을 하는 것이였습니다.

리 일이는 분단들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범으로 뒤떨어진 동무들을 앞장에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한 번은 좋은 일을 제일 적게 한 동무들을 데리고 나와 교실에 회'가루칠을 하고 있는데 인민반 4 학년 동무들이 와 보고 몹시 부러워 했습니다. 리 일이는 곧 동무들을 데리고 인민반 아이들의 교실에 가서 회'가루칠을 멋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일한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곧 속보에 내여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소년단원들 누구나의 사랑을 받는《우리 벽보 주필》로 되였습니다.

조국에 돌아 와서 다섯 해! 이처럼 리 일은 오직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 대로 배우며 생활하여 마침내 지난 8월 소년단원의 가장 높은 영예인《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았습니다.

(작 문)

옥류교에서 만난 어머니

나는 잡지《소년단》8 호에서 공화국 영웅 리 병모 오빠의 소년단원 시절에 대하여 쓴《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곱씹어 읽었습니다.

영웅 오빠에 대하여 쓴 글을 읽은 후부터 나는 매일 저녁(오늘도 나는 영웅 오빠처럼 소년단 생활과 학습을 하였는가?)하고 혼자 돌이켜 봅니다.

나의 소년단 생활에서 모자라는 점은 례의 도덕을 잘 지키지 못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혼자서도 얼굴을 붉히군 합니다. 학교에 갔다 온 나는 아동 백화점에 갔습니다. 흐린 날씨에 비가 올 것 같아서 나는 우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학습장과 콤파스를 사 가지고 옥류교까지 왔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가지고 갔던 우산을 썼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내 옆으로 아기 업은 어머니가 우산을 쓰지 못 하고 비를 맞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뛰여 가 어머니에게 우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꾸만 사양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우산을 같이 쓰고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주에 사시는데 처음 문신동에 있는 친척집으로 찾아 가다 그만 뻐스에서 잘못 내렸던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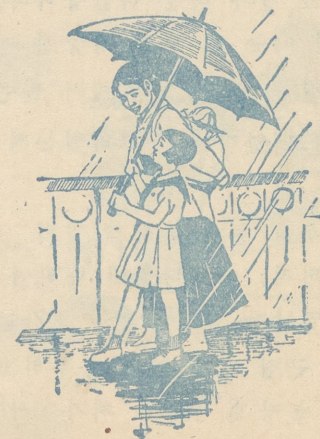
옥류교를 지나 서자 나는 집에 거진 오게 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문신동으로 가는 길을 대여 올리고 헤여졌습니다.

우산을 쓰고 집으로 돌아 온 나는 옥류교에서 만났던 어머니가 자꾸 생각났습니다.(어머니는 비를 맞으며 처음 오시는 집을 어떻게 찾으셨을가? 우산을 올릴 걸, 그리고 친척집도 찾아 올릴 걸……)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쓸 데 없었습니다.

그 후 나는 리 병모 영웅 오빠에 대한 글을 읽고 더욱 그 때 내가 잘못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웅 오빠처럼 례절 바르고 웃어른들과 로인을 존경할 줄 아는 소년단원으로 되기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평양시 동신 중학교 **강 미옥**

(작문) 관리 위원회 앞을 지날 때마다

우리 마을 앞에 큰 길이 있습니다.

이 길 옆에는 우리 농장 상점이 있고 상점 뒤에 관리 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이 길을 지나 학교로 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때마다 나는 관리 위원회 아저씨들을 만납니다. 농장원 아버지, 어머니들도 자주 만납니다. 나는 이 분들과 딱 마주치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려니 어쩐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소년단원의 의무를 생각하면 웃어른들에게 꼭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른 손을 올렸다가 이내 내리고 달아 나군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리 병모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읽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농장 관리 위원회 아저씨들과 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내가 학교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하고 있을 때 넓은 농장'벌 여기 저기에서 땀 흘리며 일하십니다. 내가 아직 단잠을

자고 있을 때 관리 위원회 아저씨들은 아침 이슬에 옷을 흠뻑 적시며 이 작업반, 저 작업반으로 찾아 다니십니다.

우리 농장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나날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시는 분들입니까! 언뜻 나의 머리에는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동단원들은 웃어른들을 하루에 열 번 만나면 열 번 다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웃어른들의 그림자를 밟는 것까지 삼가했다고 합니다. 리 병모 영웅 오빠는 소년단원 시절 때부터 아동단원들의 이 모범을 본 받아 그처럼 늙은이들과 웃어른들을 존경하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영웅 오빠는 늙은이들과 웃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허리를 굽혀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리 병모 영웅 오빠의 이 훌륭한 마음과 례절을 언제나 따르려고 마음 다졌습니다.

평북도 운전군 운하 중학교 중등반
2 학년 최 영자

《다섯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읽고 지상 작문 발표

(작문) 가장 아름다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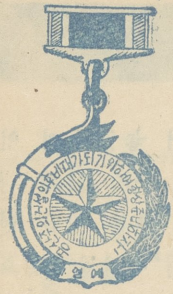
《병모의 일생은 정말 짧았지요. 그렇지만 병모는 남들의 백 살 맞잡이로 살았수다…》

나는 리 병모 영웅 형님의 고향 마을 할머니의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리 병모 형님의 일생은 열 아홉 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모 형님은 얼마나 보람 있게 살았습니까! 형님은 사회와 인민을 위해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웅 형님은 늙은이들과 웃어른들을 위해 고향 마을 개울에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았으며 인민반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기 위해 피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웅 형님이 인민반 때에 비'바람을 맞으며 떠다 심은 두 그루의 키 높이 자란 밤나무를 보는듯 합니다. 영웅 형님이 그처럼 아끼고 사랑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책상과 걸'상……

고향 마을의 모든 것이 영웅 형님이 남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길이 전할 것입니다.

형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공부 잘 하고 부지런하고, 례절 바른 영웅 형님을 두고 두고 외울 것이며 영웅 형님이 날마다 코를 씻어 주며 귀여워 하던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 다니며 병모 형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비록 형님은 우리의 곁에 없지만 그의 아름다운 마음은 우리의 가슴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신의주시 사대 부속 중학교
단 위원장 정 광조

성천강'가에서

—함흥시 만세교 중학교 단 위원장 유 경상 동무에 대한 이야기—

김 준규

그 날 유 경상 동무는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이 구역 사로청에 보내는 급한 문건을 가지고 만세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낮이 퍽 기운 때였지만 뜨거운 해'별이 내려 쪼였습니다. 시원한 강물 속에 뛰여 들어 가 한바탕 목욕을 하고 싶었지만 경상 동무는 꾹 참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걸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비밀 쪽지를 가슴에 품고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을 찾아 급한 길을 떠난 아동단원들과 같았습니다. 경상 동무가 만세교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엄마—》 어디선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자지러진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흠칫 걸음을 멈추고 강 저 쪽을 바라본 경상 동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 속에서 몇번 작은 손'길이 허우적거리다가 없어졌습니다.

《앗!》 경상 동무는 더 생각할 사이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강'가로 뛰였습니다.

어느 결에 강'가에 이른 그는 급히 웃저고리를 벗어 던지고 첨벙 강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이 때 벌써 물을 한껏 먹은 두 아이는 정신을 잃고 멀리 떠 내려 가는 것이였습니다.

경상 동무는 있는 힘을 다하여 헤염쳐 내려가 두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하나씩 옆구리에 끼였습니다. 그는 둘 다 한꺼번에 끼고 헤염쳐 나오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 뿐이였습니다.

아직 나 어린 그가 어떻게 두 아이를 끼고 세찬 물'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달리 생각한 경상 동무는 한 아이를 먼저 끼고 헤염쳤습니다. 그는 인민반 1학년에 다니는 정섭이였고 다른 아이는 길수였습니다. 길수는 그냥 떠 내려 갔습니다.

정섭이만 끼고 헤염쳐 나오는 경상 동무는 안타까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마침내 경상 동무는 정섭이를 끼고 강'기슭까지 나왔습니다.

경상 동무는 힘이 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길수를 마저 구원해야 했습니다. 벌떡 일어 난 경상 동무는 잠시 숨을 돌려 강'기슭을 따라 내리뛰였습니다. 길수는 벌써 퍼그나 멀리 떠 내려 간 것이였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허우적거릴 뿐이였습니다.

경상 동무가 길수를 구원해 내려고 다시 물 속으로 뛰여 드는 바로 그 때 강 건너 편 멀리 아래 쪽에서 빨래하던 어머니들이 알고 뛰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만세교를 건너 강'가에 이른 것은 경상 동무가 길수를 안고 나와 자갈밭 우에 쓰러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애들을…이 애들을 물…》 경상 동무는 어머니들을 알아 보고 간신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들은 경상 동무와 두 어린아이를 하나씩 안고 그들이 먹은 물을 토하게 하였습니다.

이윽하여 경상 동무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 나 앉았습니다. 그는 두 아이를 둘러 보았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마음을 놓은 경상 동무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후 하고 내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할 일을 다 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의 웃저고리 호주머니 속에는 구역 사로청에 가져 가야 할 문건이 있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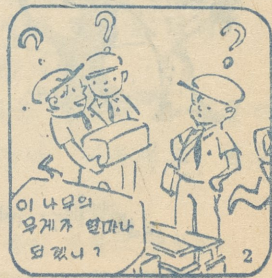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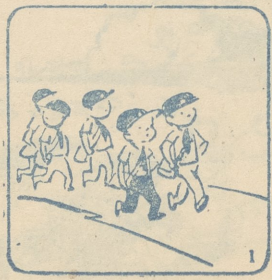
《어머니들, 수고스럽지만 이 애들을 돌봐 주십시오. 전 심부름 가던 길이예요.》

경상 동무는 재빨리 달려 가 옷을 입고 시내를 향해 걸어 갔습니다.

이 날 구역 사로청에 가 문건까지 전한 경상 동무는 해질 녘에야 학교에 돌아 왔습니다.

경상 동무는 참으로 훌륭한 소년단원입니다. 그는 아직 하루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 일이 없고 6년 동안 내내 최우등을 하여 왔습니다.

이리하여 경상 동무는 지난 8월 소년단원의 더 없는 영예인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았습니다.

(제 1 회)

현 룡 균

우리 인민이 미제 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된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인민군 용사들, 소년단원들의 빛나는 투쟁 이야기들을 수 많이 들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그 때에 있은 수 많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였다.

여기 황해 북도 수안군 성교리 배바우'골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소년단원들의 지혜롭고 용감한 투쟁 이야기를 다음에 소개한다.

적후로 들어 간 소년단원들

두 소년단원들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다잡으며 적들이 강점하고 있는 상구리로 들어 가고 있다. 그들은 김 응선과 김 금녀 오누이다.

제 세상을 만난듯이 지랄치는 놈들의 고함 소리, 원쑤를 저주하는 인민들의 웨침, 미친듯이 컹컹짖어대는 개 소리, 불타는 집…마을은 온통 수라장이 되고 있었다.

(어떻겉가?!)

응선과 금녀는 마을 뒤 바위 짬에 숨어서 어떻게 마을로 들어 갈 것인가를 꼼꼼히 생각하고 있다.

마을 한복판으로는 《치안대》 놈들이 죄 없는 인민들을 체포하느라고 미친개처럼 사방 싸다니고 있다.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나날은 벌써 10여 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주암리는 언진산 줄기를 따라 말메산과 거지산 짬에 마치 물 우의 배처럼 길죽한 골짜기를 이루고 있다. 주암리는 수안읍과 큰 고개를 사이에 두고 불과 시오리 남짓하게 떨어져 있는데 3개의 면, 3 개의 리와 서로 마주 닿아 있었다. 이 면과 리들에 둥지를 튼 미군 놈들과 그 앞잡이 괴뢰군 놈들 그리고 《치안대》 놈들은 주암리를 점령해 보려고 기를 쓰고 달려 들고 있었다.

배바우'골 사람들은 이웃 마을과 통하는 사방 길목들에 보초를 세우고 마을을 지켜 내고 있었다. 손에 총을 쥔 자위대원들을 돕는 마을은 말 그 대로 하나의 전투장과도 같았다.

곳곳에 차려 놓은 야장'간들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한 자루씩 차례질 수 있는 날창을 벼리고 있었다. 집집들에서는 쌀을 찧는 절구질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솜 동복과 버선, 장갑들을 만들기에 마을은 떠들썩 바빴다.

마을의 소년단원들은 부모들을 도와 쌀을 찧기도 하고 보위색 물'감을 들이는 데 필요한 나무 껍질들도 벗겨 오고 고개턱에서 망도 보았다.

그러나 주암리 골짜기 밖에 있는 동막동(상구리)에서는 미군 놈들을 등대고 《치안대》 놈들이 미친개처럼 날뛰고 있었다. 놈들은 죄 없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다 치고 죽이였다. 그 놈들은 주암리에까지 《치안대》를 조직하겠다고 떠벌리면서 쩍하면 집적대군 하였다. 그러다는 골탕을 먹고 쫓겨 가군 하였다.

이런 때 주암리 자위대에서는 가만히 침입해 들어 오는 적들을 기다렸다가 칠 것이 아니라 적들의 둥지를 습격해서 쳐부시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주암리 자위대의 힘이 세다는 것과 또 주암리 깊은 골짜기에는 수천 명의 인민군대가 있다는 것을 선전하여 놈들이 겁을 먹고 접어 들지 못하게 하자고 하였다.

이런 선전을 누가 맡을 것인가!

적들이 욱실욱실하는 상구리로 내려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더우기 한 마을이나 다름 없는 상구리 사람들은 주암리 사람들을 이웃 사람처럼 빤히 알고 있는지라 어른들은 상구리로 내려 갈 엄두도 내지 못 하였다.

이런 때 김 응선, 김 금녀, 김 호선, 김 왈룡, 리 완식 등 (지금의 황해 북도 수안군 평원리 평원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이 임무를 자기들에게 맡겨 달라고 당돌하게 나섰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왜 공부도 못 하고 이 고통을 겪어야 하며 지금 아버지, 어머니들이 무엇 때문에 손에 총과 날창을 들고 놈들과 싸우고 있는가를 똑똑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미국 놈들이야 말로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앉아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공화국 북반부까지 삼키려는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승냥이와 같은 놈들이라는 것을 이미 학교에서,소년단에서 배웠던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 소년단원들은 전쟁 승리를 위하여 파고철도 모았으며 가마

니를 짜서 전선으로 보냈고, 식량 증산을 위해 싸우는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위장을 하고 발김도 매고 가을도 했다.

흉악한 원쑤놈들은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며 지금 고향 땅으로 기여들고 있다. 소년단원들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이 타 올랐다.

그러기에 마을의 소년단원들은 로동당원들과 민청원 형님들이 손에 총을 들고 무장 자위대를 조직하자 자기들도 소년 자위대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벌써 그들은 며칠째 부모들을 도와 원쑤놈들의 전화선도 끊고, 삐라 공작도 할 데 대하여 토론하고 있었던 참이였다.

소년단원들의 담찬 태도에 감동된 자위대장 김 지영 아저씨는 소년단원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였다.

《참 장하다! 승냥이 같은 미국 놈들은 우리 조선 사람을 몽땅 제 놈들의 종으로 만들려고 덤비고 있다.

그러나 놈들은 이제 며칠 가지 못 한다. 인민 군대는 놈들을 몰아 내고야 만다. 우리의 고향 마을을 우리들의 힘으로 지켜 내자!》

응선과 금녀는 바위 짬에서 한참 동안이나 토론하다가 산'기슭에 있는 목화밭으로 내려 갔다. 그들 오누이는 목화밭에서 미처 따지 못 한 목화 송이들을 따고 있었다.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오누이는 보란듯이 노래까지 부르며 목화 송이들을 딴다.

《거 뉘 집 것들이냐?》

하고 고아대며 키꼴이나 한 할미 하나가 뛰여 나왔다. 오른 쪽 귀 밑에 주먹만큼 한 큰 혹이 달린 혹부리 할미였다.

낯이 선 아이들을 두루 살핀 할미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눈알을 끔벅거리며 물었다.

《너희들 주암에서 오잖았니?》

《예, 주암에서 왔어요!》

응선이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혹부리 할미는 주암이란 말에 귀가 버쩍 띄였다. 본래 지주인 혹부리 할미는 주암리에 있는 《자기의 땅》을 되찾으려고 그 쪽 사정을 알고 싶어 하던 참이였기 때문이다. 혹부리 할미는 마침 잘 되였다고 생각하고 이들에게서 그 쪽 사정을 묻고 싶어 마치 선심이나 쓰려는듯 웃으며 말하였다.

《미리 이삭 준 거야 어찌겠니, 가지고 가렴…저 얘들아, 주암에두 〈치안대〉가 있니?》

《뭐 〈치안대〉라구요?》

응선이는 일부로 놀란 시선으로 혹부리를 마주 보았다.

《〈치안대〉는 얼씬도 못 하죠 뭐.》

《아니 왜? 그럼 거겐 상기도 자위대가 있니?》

혹부리는 점점 더 호기심이 났다. 응선은 무슨 비밀이나 말하듯 사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다가 할미 앞으로 가까이 가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에게니 말이죠, 주암리에선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늙은이들과 녀자들까지도 전부 총과 날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하고 응선과 금녀는 언진산에 수천 명의 인민 군대가 있다는 것까지 덧붙여 말했다.

그 순간 혹부리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은 아들이 《치안대》에 들어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 치며 야단이지만 그러다가는 한 마을이나 같은 주암리 사람들이 언제 나타나 《치안대》를 감쪽같이 쳐 부실지 모를 일이였다.

《뭐 뭐라구? 에그그…이걸, 이걸…》 혹부리는 눈이 퀭해졌다. 그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 주먹으로 넓적다리를 툭툭 때리며 고아 댔다.

응선과 금녀는 그 꼴이 하도 우습강스러워 킥킥 웃었다. 일은 참으로 잘 되였다. 이 때 황황히 마을로 뛰여 내려가는 할미 앞으로 몇 놈의 《치안대》가 몰려 왔다.

《야, 거기 도 도찬이 있느냐? 〈치안대〉구 뭐구 다 거더치워라.》

《뭐, 뭐요?》

하며 《치안대》 놈들이 할미 주위로 쉬파리처럼 달라붙었다.

《언진산에 인민 군대 천지란다. 에그마니나…》

《어떤 놈이 그래요?》

《저기 주암 애들이 그러누나.》

《뭐예요! 요 놈들이?》

까무잡잡한 얼굴에 도끼눈을 한 《치안대》 한 놈이 달려 오더니 다짜고짜로 응선과 금녀의 얼굴을 후려 갈기더니 그들을 앞세웠다.

《가자!》

이리하여 응선과 금녀는 《치안대》 본부로 끌려 갔다. 《치안대》 놈들이 욱실거리는 방안에는 사람들을 때리던 피묻은 몽둥이들과 바'줄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그게 정말이냐?》

《예!》 응선은 야무진 외마디 대답을 했다.

《하 요 놈 봐라, 네 눈깔로 봤니?》

《보지 않구요 뭐, 밤낮 내려 와 훈련하는걸요.》

응선이는 시치미를 딱 뗐다.

그러자 까무잡잡한 놈이 눈깔을 까뒤집으며 팔팔 뛰였다.

《요것들이 그 따위 소리들을 하고 다니는 게 아무래도 수상하다. 맛을 톡톡히 뵈 줘야겠다!》

그 놈은 응선과 금녀를 마구 후려 갈겼다. 응선과 금녀의 눈에서는 복수의 불이 펑끗거렸다. 귀가 멘듯 찡 했다.

응선과 금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자 이 번에는 나무에 비끌어 매고 당장 쏘아 죽이겠다고 위협도 하고 잘 대기만 하면 좋은 물건들을 주겠다고 얼려도 보았다. 그러나 응선과 금녀가 이 따위 놀음에 넘어 갈 소년단원들이 아니였다.

놈들은 하는 수 없이 응선과 금녀를 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날 저녁 소년 자위대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응선이가 활동 정형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전투 계획을 짰다. 소년 자위대원들은 삐라 공작을 할 구체적인 방도를 세웠다. 리 균석 민청원 형님이 삐라의 내용과 그것을 붙일 방법을 말해 주었다.

이틀 후에는 김 호선, 김 왈룡, 리 완식 소년들이 룡난개를 따라 고기잡이를 하며 동막동에 이르렀다. 그들의 임무는 삐라를 붙이는 것과 《치안대》 놈들의 우두머리들이 누구인가를 알아 오는 것이였다.

그들 셋은 미리 토론한 그 대로 뱀장어, 산치를 잡아 가지고 반두를 둘러 메고 마을로 들어 갔다. 그리고는 동막동 아이들과(그들은 거의다 《치안대》에 든 집 아이들이였다.)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숨바꼭질》도 하면서 밀려 다녔다. 그러므로 《치안대》 놈들은 주암리의 세 소년들에 대해서 별로 거들떠 보지 않았다.

세 소년은 동막동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치안대》 본부와 우두머리 놈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 냈다. 그리고 《치안대》 본부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도 알았다.

리 완식이가 물방아'간을 구경하는 척 하면서 망을 보았다. 김 호선과 김 왈룡 동무는 집 담'벽과 길'가의 바위우에 삐라들을 붙이였다.

《인민 군대는 곧 돌아 온다!》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인민의 준엄한 처단을 받을 것이다!》

《언진산에는 수천 명의 인민 군대가 있다. 그들은 수안군 주위에 있는 〈치안대〉를 모조리 소탕할 것이다! 반역자들은 한 놈도 남김 없이 처단될 것이다!》

주권을 지켜 원쑤와 끝까지 싸우려는 인민의 힘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인민들은 더욱 승리의 신심을 다지였다.

삐라 앞에서 원쑤들은 벌벌 떨었다.

《치안대》에 들어 가서 따라 다니던 사람들은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다.

며칠 후 밤이 샐 무렵에 주암리의 무장한 빨찌산 부대는 소년 자위대원들이 해 온 정찰 자료를 가지고 상구리를 쳐들어 갔다.

빨찌산들은 〈치안대장〉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주위에 숨었다. 삼'단 같은 불'길이 밤 하늘을 태우며 타 오르자 불을 끄려고 원쑤들이 모여 들었다. 이 기회를 노리고 있던 빨찌산은 일제 사격을 퍼부어 원쑤들을 모조리 소탕하였다.

상구리 전투의 승리는 주암리 사람들에게는 물론 이 일대의 인민들에게 커다란 승리의 신심을 안겨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학습 문제 풀이

【학습 문제 1】

국어(인민반 4 학년)

1. 다음 부호들의 이름과 그 부호들이 어떤 때 쓰이는가 말해 보시오.

《·, ', !, ?, :, 《 》, ( ), …, ○○○, ×××》

2. 문장에서 어떤 때 띄여 쓰기를 하는가 말해 보시오.

3. 단어들 가운데는 뜻이 비슷한 단어와 뜻이 서로 반대되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들 가운데서 뜻이 비슷한 단어와 뜻이 반대되는 단어를 찾아 보시오.

말씀, 땡땡, 적다, 서늘하다, 이야기, 뗑뗑, 크다, 작다, 많다, 희다, 검다, 선선하다.

(《학습 문제 풀이》 해답)

학습 문제 1

1. •(점)은 문장 끝에 찍습니다.

례: 우리는 모두 최우등생입니다.

(반점)은 뜻이 중단되였을 때, 잠간 쉴 때에 쓰입니다.

례: 《얘, 이것은 꿈이 아니겠지.》

!(감탄표)는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례: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도 있담!》

?(의문표)는 의문의 뜻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례: 《너 어디 아프니?》

:(두점)은 앞에 쓰인 말을 더 세밀하게 설명해 줄 때 쓰입니다.

례: 우리 학교에는 여러 가지 가축들: 양, 염소, 토끼, 오리, 닭 등이 있습니다.

《 》(인용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겨 쓸 때 쓰입니다.

( )(괄호)는 보충적 설명을 할 때 쓰입니다.

례: 운동화는 항상 깨끗이 빨아(혹은 닦아서) 신고 다녀야 합니다.

…(점선)은 말이 중단될 때와 말이 끊어졌다가 다시 계속될 때 쓰입니다.

례: 명숙이는 요즘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숨김표)는 내용을 직접 글로 나타내지 않고 숨기려할 때 쓰입니다.

례: 《○○○ 동무》와 놀았다.

2. 문장에서 단어는 단어마다 띄여 씁니다.

례: (ㄱ) 영숙이는 우리 집에 왔습니다.

(ㄴ) 강철 220 만 톤 (이백 이십 만 톤.)

(ㄷ) 1945년 8월 15일.

(ㄹ) 평남도 강서군 청산리.

3. 비슷한 말: 말씀—이야기, 땡땡—뗑뗑, 적다—작다, 서늘하다—선선하다.

뜻이 반대되는 말: 적다—많다, 작다—크다, 희다—검다.

【학습 문제 2】

대수(중등반 2 학년)

암 산 법

1. 등식

$$(10a+5)^2=100a(a+1)+25$$

를 증명하고 다음 수를 암산으로 구하시오.

35^2, 55^2, 75^2,
85^2, 105^2, 115^2.

2. b+c=10일 때 등식

$$(10a+b)(10a+c)=100a(a+1)+bc$$

를 증명하시오.

다음 수를 암산으로 구하라.

72·78, 23·27, 114·116,
42·48, 67·63, 81·89.

3. a+b=10일 때 등식

$$(10a+c)(10b+c)=100(ab+c)+c^2$$

을 증명하고 다음 수를 암산으로 구하시오.

23·83, 29·89, 72·32,
47·67, 68·48.

(《학습 문제 풀이》 해답)

학습 문제 2

1) $(10a+5)^2=100a^2+100a+25=100a(a+1)+25$

$35^2=3(3+1)100+25=1,225$

$55^2=5(5+1)100+25=3,025$

$75^2=7(7+1)100+25=5,625$

$85^2=8(8+1)100+25=7,225$

$105^2=10(10+1)100+25=11,025$

$115^2=11(11+1)100+25=13,225$

2) $(10a+b)(10a+c)$
$=100a^2+10ac+10ab+bc$
$=100a^2+10a(c+b)+bc$
$=100a^2+100a+bc$
$=100a(a+1)+bc$

$72\cdot78=7(7+1)100+2\cdot8=5,616$

$23\cdot27=2(2+1)100+3\cdot7=621$

$114\cdot116=11(11+1)100+4\cdot6=13,224$

$42\cdot48=4(4+1)100+2\cdot8=2,016$

$67\cdot63=6(6+1)100+7\cdot3=4,221$

$81\cdot89=8(8+1)100+1\cdot9=7,209$

3) $(10a+c)(10b+c)$
$=100ab+10ac+10bc+c^2$
$=100ab+10c(a+b)+c^2$
$=100ab+100c+c^2$
$=100(ab+c)+c^2$

$23\cdot83=(2\cdot8+3)100+3^2=1,909$

$29\cdot89=(2\cdot8+9)100+9^2=2,581$

$72\cdot32=(7\cdot3+2)100+2^2=2,304$

$47\cdot67=(4\cdot6+7)100+7^2=3,149$

$68\cdot48=(6\cdot4+8)100+8^2=3,264$

학습 문제 3

①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② 등속 운동의 속도라고 합니다.

즉 속도는 $\frac{\text{거리}}{\text{시간}}$이며, 속도의 단위는 cm/초, m/초, m/분, km/시 등으로 표시합니다.

학습 문제 풀이

【학습 문제 3】

물리(중등반 2 학년)

① 물체가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가는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②물체가 단위 시간에 간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며 속도의 단위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③ 여러 가지 물체들과 물질들의 운동 속도를 4 개 이상 말해 보시오.

【학습 문제 4】

력사(중등반 1 학년)

우리 나라 3 국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자랑으로 되는 것을 아는 대로 들어 보시오.

(《학습 문제 풀이》 해답)

③ •빛의 속도—300,000 km/초
•라지오 전파의 속도 300,000 km/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 30km/초
•소리의 속도—340m/초 (15°c일 때)
•제비가 나는 속도—80 km/시

학습 문제 4

△ 과학과 기술

천문학—경주의 첨성대.

건축술—경주에 있는 황룡사, 강서에 있는 세 무덤, 안악에 있는 하무덤.

야금 기술—황룡사의 종 (높이 3m 50cm, 직경 2m 50cm, 무게 49만 근)

금이나 은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기술—금관.

△ 문학과 예술

—음악—

창작된 악기—피리, 북, 거문고, 가야금.

창작된 노래—신라 사람들의 노래 《향가》 25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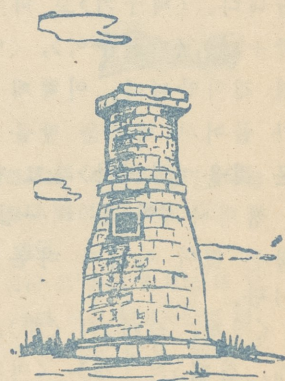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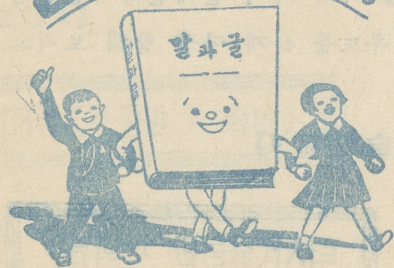
재간 있는 음악가—왕 산악, 우 륵(가야국 사람)

—그림—

안악 하무덤과 강서 세 무덤의 벽화.

유명한 화가—솔거.

—문학—

문학 작품—《온달전》, 《토끼전》

남이와 옥이

하루는 우리 《소년단》의 《남이》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순길 동무한테서 온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었지요.

《…개구리, 뻐꾸기, 꾀꼬리, 매미 같은 새나 벌레 이름은 왜 모두 끝에 〈리, 기, 미〉 같이 〈이〉 소리가 들어 있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 남이와 옥이는 순길네 마을로 찾아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순길네 반 동무들과 한자리에서 단어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개구리는 〈개굴개굴〉 울기 때문에 〈개굴〉을 따서 거기다 〈이〉를 붙인 것이랍니다. 〈뻐꾸기〉도 마찬가지지요. 〈뻐꾹+이〉, 〈꾀꼴+이〉, 〈맴+이〉—이렇게 된 것이랍니다. 이렇게 다른 말의 뒤에 가 붙어서 새로운 말을 이루는 〈이〉 같은 것을 〈접미사〉라고 한답니다.

접미사 〈이〉는 새—짐승의 이름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쓰입니다.

〈집게, 지게〉의 〈게〉, 〈지우개, 받치개, 털개〉의 〈개〉, 〈마개〉(막+애), 써레(썰+에)의 〈애〉와 〈에〉같이 무슨 일을 하는 도구를 가리키는 것도 있고, 〈손질, 삽질, 망치질〉의 〈질〉이나 〈손'짓, 몸짓〉의 〈짓〉처럼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 것도 있고, 〈일'군, 농사'군〉의 〈군〉과 같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있답니다. 〈행복스럽다〉의 〈스럽다〉와 같이 형용사를 만드는 것도 있고 〈흔들거리다〉의 〈거리다〉와 같이 동사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또 〈높이높이 올라라, 멀리멀리 날아라〉에서 〈높이〉, 〈멀리〉처럼 부사를 만드는 것도 있답니다.

이 번에는 반대로 어떤 말의 앞에 붙어서 새 말을 이루는 것들을 찾아 봅시다.

〈군말, 군소리〉의 〈군〉, 〈강다짐, 강추위〉의 〈강〉…과 같은 것을 접두사라고 한답니다.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는 말—곧 〈풋잎사귀〉에서 〈잎〉 같은 말을 어근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밤낮〉이라는 말을 보세요.

여기서는 어느 것이 접미사고 어느 것이 접두사일가요? 여기는 접두사도 접미사도 없어요. 〈밤〉이라는 어근과 〈낮〉이라는 어근이 맞붙어서 새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어근끼리 맞붙어서도 많은 말이 만들어진답니다. 〈논밭, 앞뒤, 우아래〉도 이렇고, 〈책가방, 고무연필, 돌다리, 나무'가지, 꾀꼴새, 산들바람, 징검다리, 꽃밭, 꽃병, 물오리, 불'기둥〉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 번에는 이렇게 어근끼리 맞붙은 것에 다시 접두사나 접미사가 또 붙기도 한답니다. 〈(밭+갈)+이→밭갈이〉 또는 〈[(논+밭)+갈]+이→논밭갈이〉—이렇게 된답니다. 〈논풀이, 손잡이, 책받치개, 먼지털개, 가을갈이, 가을걷이〉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 번에는 〈달랑달랑〉, 〈덜렁덜렁〉, 〈딸랑딸랑〉을 봅시다. 여기서는 소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지고 새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말에 아주 많습니다. 〈잘잘—절절—졸졸—줄줄—질질—잘잘〉, 〈산들산들—선들선들〉, 〈방글방글—벙글벙글—빙글빙글—뱅글뱅글〉, 〈꼼지락꼼지락—꿈지럭꿈지럭〉 등이 있습니다.》 하고 남이는 말을 끊었어요.

그런데 순길이가 단어 만드는 법이 그 밖에도 또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있고 말고요. 〈달이 밝다〉에서는 〈밝다〉가 형용사인데 〈벌써 날이 밝는다.〉에서는 〈밝다〉가 동사입니다. 서로 다른 두 단어이지요. 그런가 하면 〈띠—띠다, 신—신다, 공부—하다, 운동—하다〉와 같이 명사에 토만 붙어서 동사로 되는 것도 있답니다.

그 밖에 〈덕성 중학교〉를 〈덕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말을 줄여서 만든 단어도 있답니다.》

옥이가 여지껏 잠잠고 있더니 《그러나 글로 적을 때는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고 나섰습니다.

《〈개굴+이〉라고 해서 〈개굴이〉 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라고 쓴답니다. 그러나 〈손+잡+이〉는 〈손잡이〉라고 쓴답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이〉를 밝혀서 쓰고 어떤 때는 안 밝히는가? 그것은 〈개구리, 뻐꾸기, 꾀꼬리, 매미〉 같은 새, 짐승, 벌레의 이름에서는 대개 밝혀 쓰지 않는답니다.

또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의 〈이〉가 〈저 이가…〉 할 때의 〈이〉와 같은 말이라고 해서 〈이 이, 그 이, 저 이, 오시는 이, 말씀해 주신 이〉 할 때에도 〈이〉를 앞에 가져다 붙여 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는 〈이 분, 그 분, 저 분, 오시는 분, 말씀해 주신 분〉 할 때의 〈분〉과 같이 띄여서 써야 합니다.》

남이와 옥이는 말을 마치면서 다른 동무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순길이는 말을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개구리, 뻐꾸기…〉 같은 말도 그냥 듣지 않고 뜻을 따지면서 생각하니까요.》 하고 칭찬했습니다.

꼭 알아 두십시오

책을 어떻게 건사하는 것이 좋을가요?

책꽂이에서 책을 뽑을 때나 끼울 때에는 책등 꼭대기를 잡고 뽑거나 꽂아야 한다.

책꽂이에는 책을 빽빽히 꽂지 않는 것이 좋다. 책과 책 사이에 짬이 없으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책에 곰팡이가 낄 수 있다.

책을 읽을 때에는 손'가락에 침을 발라 책장을 마구 번지지 말아야 한다. 책장을 번질 때에는 책장 웃쪽이나 아래쪽 끝을 접히지 않게 잡고 번지는 것이 좋다.

책의 읽던 곳을 알아 두기 위해서는 책장을 접어 두는 것보다 종이를 끼워 두는 것이 좋다.

책은 해'빛이 비치는 데 오래 두면 색이 낡아지므로 해'빛이 비치는 창'가 같은 데 책장이나 책꽂이를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언제나 교묘한 전술로

—《홍의 장군》 곽 재우 의병 대장 이야기—

김 유방

《홍의 장군》은 임진 조국 전쟁 때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교묘한 전술로 일본군에게 무리죽음을 준 용감한 장군이다.

《홍의 장군》의 본 이름은 곽 재우이다. 곽 장군은 항상 붉은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전선에 나와 지휘하였으므로 그를 《홍의(붉은 옷)장군》이라고 불렀다. 이 붉은 옷은 그의 아버지가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그 곳에서 선물로 받은 것이였다.

1592년에 일본 침략자가 우리 땅에 피 묻은 발을 들여 놓자 애국심에 불타는 곽 장군은 자기 고향을 자기 힘으로 지킬 것을 굳게 마음 다지였다. 그는 곧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 나라에 기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젊고 싸울만 한 사람들이 수 백 명이나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어 나 정나루(마을 어귀에 있는 나루터)를 지킨다면 놈들이 우리 고향 마을에 발'길을 들여 놓지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일어 나 싸웁시다!》

곽 재우 장군의 이 호소에 압박 받고 천대 받던 마을 사람들은 한사람처럼 일떠섰다.

곽 장군은 곧 자기 집의 재산을 몽땅 팔아서 의병들의 식량도 사고 의복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비겁한 량반들이 도망치면서 버린 무기, 량식 등으로 수많은 청년들을 무장시켜 짧은 시일 내에 억센 의병 부대를 조직하였다.

곽 장군은 적과 싸울 때 항상 대오의 앞장에 서서 사자와 같이 용맹하게 적을 무찔렀으나 자기 부하들에게는 어머니 같이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하였다. 그는 자기 옷을 벗어 부하 의병들에게 입혀 주었고 자기 집 식구들의 의복까지도 의병들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의병들이 적에게 포위당하거나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에는 언제나 자기 목숨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들을 구해 내군 했다.

그러므로 의병들은 곽 장군을 선생같이 존경하였으며 부모 같이 사랑하였다. 이리하여 지휘관과 의병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죽음을 각오하고 원쑤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한 덩어리로 뭉친 의병, 자기의 목숨을 터럭 같이 가볍게 여기고 싸우는 의병을 거느린 곽 장군은 원쑤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였다.

곽 장군은 교묘한 전술을 잘 썼는데 적들은 이 전술에 걸려 들면 꼼짝 못 하고 지고 말았다. 그의 전술은 자기들이 차지한 유리한 지형을 리용하여 전투때마다 먼저 손을 쓰고 조선의 지리와 지형을 모르는 적들의 약한 고리를 능숙하게 리용하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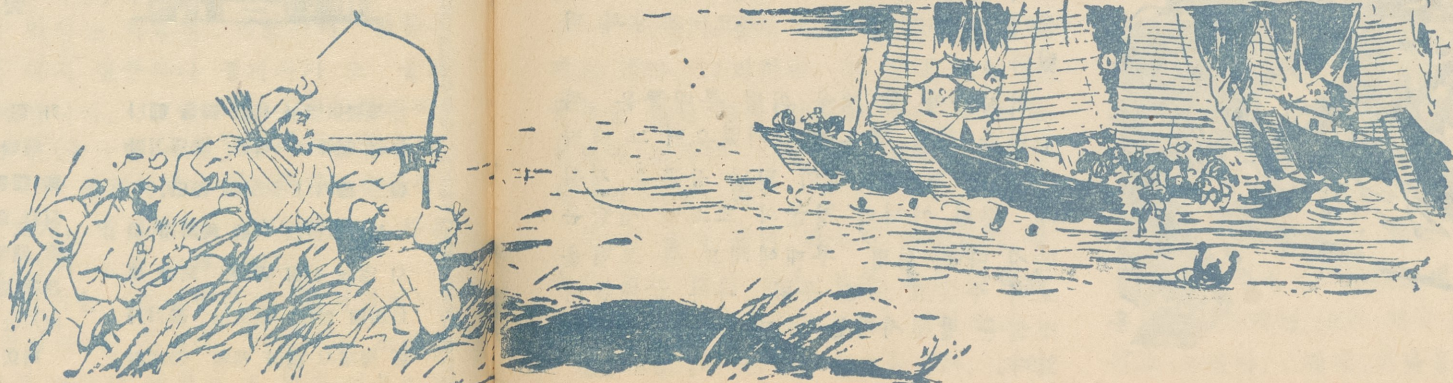
적들은 배에다 숱한 무기와 식량을 싣고 정나루를 향하여 쳐 들어 오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곽 장군은 락동강'가에 진지를 잡고 의병들을 숨겨 놓은 후에 적의 배들이 다니지 못 하게 몰래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 놓았다.

곽 재우 장군의 이 교묘한 전술을 모르고 기여 들던 40여 척의 적의 배들은 장애물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 했다. 이때 숨어 있던 의병들이 화살을 비오듯이 퍼부었다. 적들은 무리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전술은 곽 재우 부대가 처음으로 쓴 것으로서 그의 전과는 실로 컸다.

그러나 적의 우두머리 《안국사 혜경》이는 경상도 지방을 대번에 점령하겠다고 떠벌리면서 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마침내 정나루터에 쳐 들어 왔다.

정나루 부근에는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헤여 나올 수 없는 진펄이 있었다. 적들은 이 진펄 속에 빠지지 않고 건너기 위해 미리 선발대를 보내 얕은 곳을 골라서 표식으로 말뚝을 꽂아 놓았다. 놈들은 이 말뚝을 따라 건너 오려고 하였던 것이다. 적들이 말뚝을 꽂는다는 소식을 들은 곽 장군은 놈들이 진펄을 건느기 전 날 밤에 몰래 의병을 보내서 그 말뚝들을 모조리 뽑아다가 제일 깊은 진펄에 옮겨 꽂아 놓았다.

그리고 그 부근에 의병을 숨겨 두었다. 이것을 알 리 없는 일본놈들은 말

록이 꽂혀 있는 곳으로 건너 가다가 진펄에 빠져 한창 허우적거릴 때 숨어 있던 의병들이 총공격하여 모조리 쓰러눕혔다.

정나루에서 녹아 난 적들은 다시 기를 쓰고 달려 들었다. 이 때 곽 재우 장군은 또다시 기묘한 전술을 꾸며 냈다.

장군은 붉은 옷에 흰 말을 탄 장사 10여 명을 장군의 옷과 꼭 같이 입혀서 모두가 《홍의 장군》으로 가장시켜 적을 이끌어 들여다가 포위해서 쳐부시는 전술을 썼다. 동쪽과 서쪽에서, 남쪽과 북쪽에서 소부대를 거느린 《홍의 장군》이 번개 같이 나타났다가는 번개 같이 사라지는 통에 원쑤들은 미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방금 《홍의 장군》이 앞에 나타났었는데 별안간 뒤에서 또 《홍의 장군》이 덤벼 드니 어느 틈에 앞에서 뒤로 갔는가? 귀신인가 사람인가? 적들은 점점 더 겁을 먹게 되였다.

적들이 귀신에 홀렸다고 갈팡질팡할 때 수림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의병 부대는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올리며 달려 나와 원쑤를 쳐부셨다.

이 전투에서 원쑤들이 얼마나 많이 쓰러졌던지 시체가 강을 막아 강물까지 제대로 흐르지 못 했다고 한다.

정나루에 기여 든 적들을 완전히 쳐부신 곽 재우 장군은 강 건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적 진지로 쳐 들어 갔다. 곽 재우 부대는 적들이 진을 친 주변에 벌통을 많이 가져다 놓고 벌통을 일제히 나무로 두드리였다.

성 난 벌 수 천 마리가 벌통을 나와 왕왕 소리 치면서 일본군에게 날아 가 얼굴, 목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쏘니 적들은 벌떼와 큰 싸움이 벌어졌다.

도망치는 놈, 넘어지는 놈, 손으로 벌을 때리는 놈, 아프다고 껑충껑충 뛰는 놈—일본군의 진지는 수라장이 되였다.

바로 이 때 의병 부대는 화살을 퍼부어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곽 장군의 이러한 교묘한 전술은 현풍성 전투에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장군은 어느 날 밤 홰'불 두 개씩을 든 의병들을 10리 사이에 늘여 세우고 북과 나팔 소리의 신호에 따라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홰'불을 켰다 껐다 하게 하였다. 이것을 본 원쑤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대가 이 현풍성을 둘러 싼 줄 알고 총 한 방 못 쏘고 도망쳐 버렸다.

이리하여 곽 재우 의병 부대들은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였으며 그 때마다 조국 력사에 길이 빛날 공훈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장군의 교묘한 전술은 당시 다른 의병 부대에게도 큰 모범을 보여 주었고 또한 우리 나라 군대들의 전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일동—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왔습니다.

혜선—할아버지, 석탄의 력사부터 말씀해 주세요.

척척할아버지—석탄이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 억 년 전 일이다. 그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 우에는 고사리처럼 생긴 큰 나무들이 늪에나 호수'가에 아주 무성하였단다. 그런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나무들이 죽어서 넘어져 쌓이고 또 쌓이게 되였지. 그런 데다 지각의 변동(지진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지구의 겉부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우에 흙이 덮이고 또 바위층이 덮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 밑에 깔린 나무들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점점 탄화되여 그것이 나중에는 오늘과 같은 석탄이 되였단다.

즉 땅 속에 깊이 파묻힌 나무들이 산소가 없는 데서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받아서 그것이 석탄으로 된 것이란다.

혜선—할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척척할아버지—석탄은 탄화 작용을 얼마나 오래 동안 받았는가에 따라 무연탄, 력청탄, 갈탄, 니탄 등으로 나눈단다.

성민—할아버지, 이 번에는 석탄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척척할아버지—우리 나라의 땅 속에는 석탄이 많이 묻혀 있는데 그 중 4 분의 3 가량이 무연탄이란다. 우리 나라의 무연탄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 질이 아주 좋은 편이다. 석탄은 우리가 집에서 불을 때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업에도 많이 쓰인단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비날론은 카바이트로 만드는데 그 카바이트는 석회석과 무연탄을 가지고 만든 것이란다. 카바이트 한 톤을 만들자면 600 kg의 무연탄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연탄은 제철소에서 립철을 만드는 데도 쓰고 높은 열에 견디는 내화 벽돌을 구워 내는 데도 쓰인다. 정말 석탄을 가지고 못

하는 것이 없다. 화력 발전소도 돌리고 기차도 움직이고…

혜선—할아버지, 《무연탄 가스화》란 것은 무연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척척할아버지—《무연탄 가스화》란 무연탄을 가스로 만들어 쓰는 일이란다. 우리 나라 연료 연구소 아저씨들은 무연탄을 가스로 만드는 데 성공해서 지금 흥남에 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무연탄 가스는 무엇보다 높은 열을 내기 때문에 쇠를 다루는 공장들에 많이 쓰인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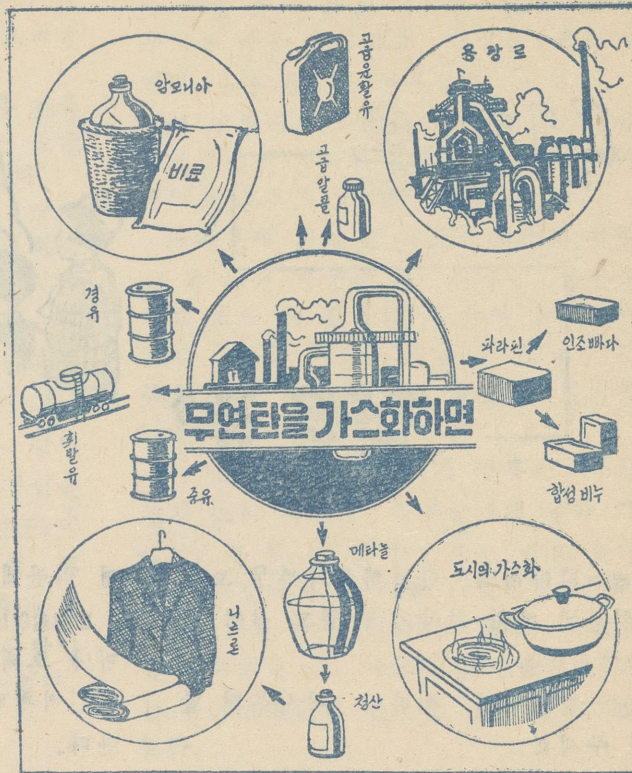
영남—할아버지, 그러면 쇠를 만드는 제철소에서도 무연탄 가스를 쓰게 됩니까?

척척할아버지—암 그렇구말구, 용광로에 전기 대신 무연탄 가스'불을 불어 넣으면 더 많은 쇠'물을 빨리 녹여 낼 수 있단다.

성민—할아버지, 무연탄 가스는 그 밖에 다른 데는 못 쓰나요?

척척 할아버지—무연탄 가스는 세멘트를 구워 내는 로라던가 유리를 녹여 내는 로에도 쓰이고,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기 위해 증기를 만드는 데도 쓰인다. 그리고 중요하게 쓰이는 것은 화학 공업이다.

영남—화학 공업에도요?

척척할아버지—그렇구말구. 무연탄을 가스화하기만 하면 못 만드는 것이 없다. 우선 무연탄 가스로는 좋은 암모니야 비료를 만들 수 있단다. 또 무연탄 가스를 만드는 데서 나오는 원료로는 뇨소라는 걸 만드는데 이 뇨소를 가축들에 먹이면 살이 푹푹 진단다. 뇨소 1 kg은 귀밀 22~25 kg 혹은 콩깨묵 6~7.5 kg과 맞먹는단다.

성민—할아버지, 그러니 무연탄으로 고기를 만들어 내는 셈이구만요.

척척 할아버지—이를테면 그런 셈이다. 그리고 뇨소로 만드는 수지로는 접착제(까풀처럼 붙이는 데 쓰는 것), 건축 재료, 각종 일용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무연탄을 가스로 만들 때 얻은 일산화 탄소와 암모니아, 카바이트를 가지고는 거기에다 메타놀이라는 걸 섞어서 니트론 섬유를 만들어 낸단다.

혜선—할아버지, 니트론 섬유란 어떤 섬유입니까?

척척할아버지—니트론 섬유는 털실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인데 양털보다도 그 성질이 썩 좋은 섬유란다. 이 니트론 섬유로는 털 세타도 만들 수 있고 털 외투, 털 양복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겨울 옷과 따스한 내의를 만들 수 있다. 그 뿐이겠니? 무연탄 가스에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서 가공하면 석유와 휘발유도 얻어 낼 수 있다. 무연탄 3~4 톤이면 1 톤의 휘발유가 나온다. 그리고 또 무연탄 가스로는 파라핀(불 켜는 초의 원료)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이 파라핀을 가공하면 콩기름으로 만든 비누보다도 때가 2~3 배나 더 잘 지는 훌륭한 비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누 만드는 데 쓰던 콩기름은 사람들이 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성민—할아버지, 무연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력청탄과 갈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척척할아버지—력청탄은 열을 많이 내는 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철소에서 쓰는 콕크스를 만들거나 기관차나 기선에 많이 쓰인단다. 그리고 벤졸이나 나프타린 같은 여러 가지 화학 약품도 뽑아 내고 암모니야 비료라던가 또 휘발유까지도 뽑아 낼 수 있다.

혜선—할아버지, 그러면 갈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척척할아버지—갈탄은 석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석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색갈도 완전히 검은 색갈이 못 되고 갈색이란다. 우리 나라에서 갈탄은 그 대부분이 함경 북도에서 난다. 우리 나라의 갈탄은 질이 아주 좋아서 화학 공업에 많이 쓰인다. 즉 반성 콕크스라는 것을 만든다. 반성 콕크스라는 것은 쇠'물을 뽑는 데 쓰이는 콕크스처럼 1,200°C에서 굽지 않고 600°C 정도에서 구운 콕크스를 말한다.

반성 콕크스에서는 여러 가지 약품을 만드는 원료를 뽑아 낸단다.

페놀수지의 원료인 포르말린을 만드는 것도 갈탄이란다. 또 갈탄으로는 비날론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메타놀이란 것을 뽑아 낸다. 이 메타놀로는 소케트, 스위치 등을 만드는 수지의 원료를 만든단다. 그리고 갈탄에서는 타루라는 것을 만들어 의약품과 물'감도 뽑아 낸다. 이 외에도 갈탄은 증기 기관차나 보이라에도 많이 쓰인다.

영남—할아버지, 니탄은 어떻습니까?

척척할아버지—응, 니탄은 보통 토탄이라고들 말하는데 거의 흙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단다. 니탄은 말리우면 장작과 같이 딴딴해서 불이 잘 붙는단다. 그러나 높은 열을 내지 못 하는 것이 탈이다. 평안 북도 정주나 황해 남도 연안 지방에서 많이 나는데 거기서는 이 니탄으로 방을 덥히고 밥을 짓는다. 또 니탄은 농사를 짓는데 좋은 비료로 될 수 있다. 앞으로 니탄도 발생로라는 데 넣어 가스를 만들어 콕크스를 만드는 데 리용하게 될 것이다.

영남—할아버지, 그러니 석탄은 우리의 생활에서나 나라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만요.

척척할아버지—암 그렇구말구, 그래서 석탄을 《검은 금》이라고도 하고 또 《공업의 빵》이라고도 한다.

일동—할아버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남조선 이야기)

진짜 도적놈은 누구인가!

박 명 철

서울에서 오는 려객 렬차가 춘천역에 멎었습니다. 중절모를 눌러 쓴 신사쟁이들, 보'짐을 인 아낙네들, 트렁크를 든 사람, 삽시에 역 구내는 차에서 내린 손님으로 하여 벅적 끓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아, 우리 출찰구 쪽으로 가 볼가?》

구두닦이 통을 벌려 놓고 앉았던 더벅머리 소년이 벌떡 일어 서며 곁에 앉은 까만 눈의 소년을 쳐다보았습니다.

《구두 닦을 사람이 있을가?》

까만 눈의 소년은 엉거주춤 일어 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남조선 강원도 춘천시 신남동에서 사는 김 춘식 동무였습니다. 지게'군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두 해 전에 앓아 눕게 되자 춘식이는 구두닦이로 나섰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식당이나 료리점에 가서 심부름'군으로 써 달라고 졸라 대 보았으나 어디서나 그를 따뜻이 맞아 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전에 신남 《국민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급에서 공부하던 영일이를 만나 구두닦이 일을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과 칼바람 부는 추운 겨울 날 할 것 없이 춘식이는 하루도 빠짐 없이 구두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손은 갈쿠리처럼 째지고 홑옷 사이로 여윈 살'갗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춘식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앓는 아버지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 몸 고달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빈 손으로 집에 들어 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동생들은 밥 달라고 조르지 못 하고 그저 가마목에 앉아서 훌적훌적 울기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아버지는 주무시지 못 하고 하늘이 내다 보이는 천장을 보며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춘식이는 길 가는 손님들의 옷섶을 잡고

《구두 닦으세요. 네 구두요.》 하고 조르듯 빌었습니다. 이 날도 그래서 정거장 문앞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출찰구에서 나온 손님들이 우르르 역 광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일이와 춘식이는 갈린 목소리로 《구두 닦으세요, 구두요!》 하고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구두를 닦아 달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런 저녁 볕이 광장에 비치였습니다. 어깨를 척 늘인 춘식이는 줄곧 한숨만 지었습니다.

《얘, 우리 로타리 쪽으로 갈가?》

영일이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로타리?》

《응… 혹 미군놈들이 구두를 닦을지 몰라.》 영일이가 말하는 시내 로타리 근방에는 미군놈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응 가자!》

두 소년은 로타리 쪽으로 막 달려 갔습니다.

춘식이가 분주히 구두닦이 통을 내려 놓고 자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철갑모에 《엠피》라고 쓴 양키 한 놈이 어슬렁어슬렁 다가 왔습니다.

《구두 닦으시오.》 양키는 어깨를 으쓱하며 통 우에다 한 발을 올려 놓았습니다. 춘식이는 얼른 양키놈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놈은 휘'바람을 휙 불더니 뚜벅뚜벅 걸어 갔습니다.

《…돈 주세요. 값을 치르세요…》

춘식이가 뒤따라 가며 이렇게 말하자 그 놈은 어깨를 홱 돌리며 날카롭게 쏘아 보았습니다.

《값을 치뤄야 해요.》

춘식이는 다급히 따라 가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놈은 돈을 줄 대신에 《까뗌!》 하고 돼지 멱 따는 소리를 지르더니 어린 춘식이의 뺨을 찰싹하고 후려 갈겼습니다. 춘식이의 눈에서는 불이 번쩍 일었습니다. 그만 아찔해서 그 자리에 엎어졌던 춘식이는 다시 일어 나서 기를 쓰고 따라 가 그 놈의 팔소매를 움켜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놈은 춘식이의 목덜미를 덥석 쥐여 잡더니 《가자! 이놈, 도적놈 같으니…》 하고 잡아 끄는 것이였습니다.

《구두 닦은 값을 주세요. 도적은 누가 도적이예요.》 하고 춘식이는 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이 악독한 미군놈은 뻰뻰스럽게도 구두 닦은 값은 안 내고 오히려 춘식이더러 《도적놈! 넌 라지오를 훔쳐 간 도적놈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놈은 그렇게 해서 제 허물을 덮어 보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 놈은 다짜고짜로 춘식이를 어던가로 끌고 가는 것이였습니다.

춘식이는 끌려 가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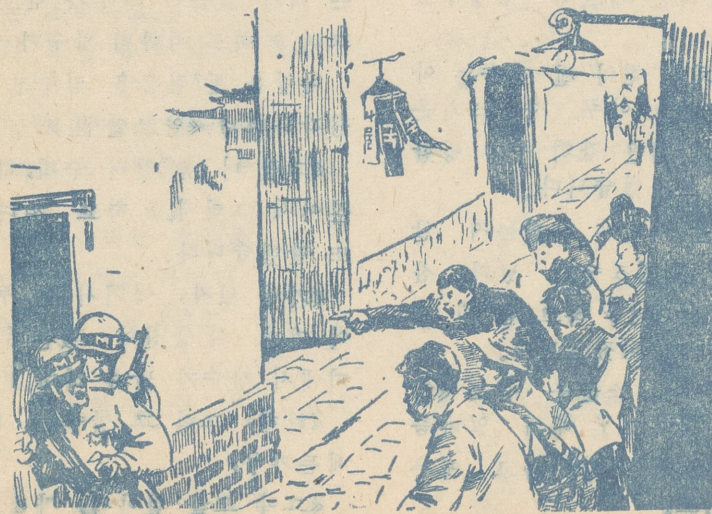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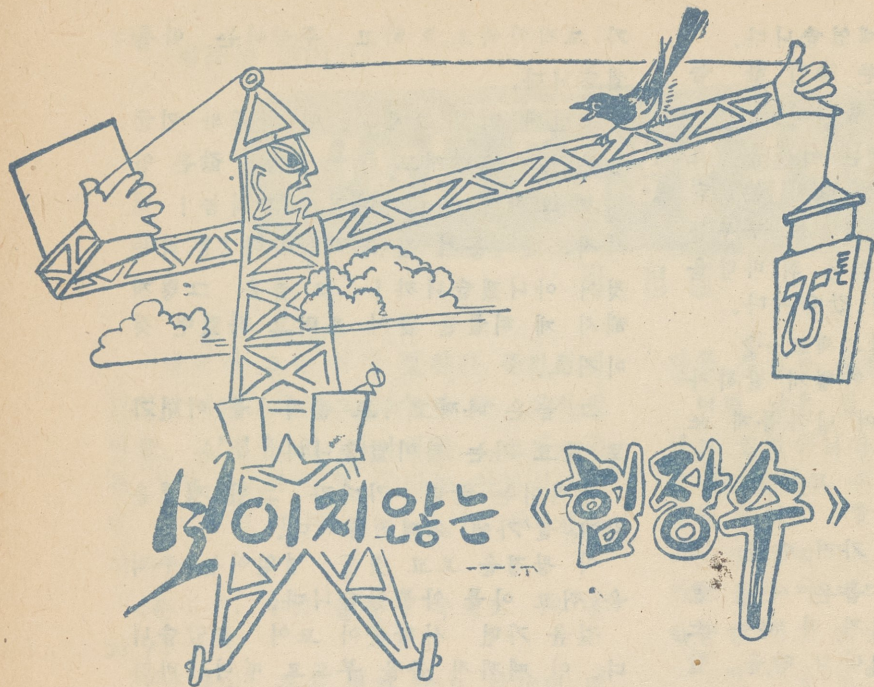
이 광경을 보고 섰던 영일이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이 때까지 몸을 부르르 떨며 바라보던 영일이는 두 주먹을 틀어 쥐고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내 동무를 때리는 저 놈이 바로 도적놈이예요! 저 미국놈이…》

영일이의 이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분노에 타오르게 했습니다.

남조선 세상에서 살판치는 양키놈들…

사람들은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 들어 춘식이를 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양키놈을 짓'이겨 놓았습니다.

현 재 덕

어느 건설장에서 하늘을 찌를듯이 아득하게 높이 보이는 키꺽다리 기중기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나 힘이 세고 키가 크던지 보는 사람마다 혀를 회회 내둘으며 놀라게 하였지요. 자그만치 단숨에 75 톤이나 되는 집채만한 브록크를 거침 없이 척척 물어 올리는 대단한 힘장수였습니다.

《세상에서 나처럼 힘이 센 장수는 아마 없을 거야.》 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을 하며 자기 힘을 감히 누가 당할 수 있으랴 싶어 으시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게 《산에 큰 힘장수가 났다, 산에 큰 힘장수가 났다!》 하고 난 데 없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이 소문을 듣고 《허허, 큰 장수가 났다고? 대체 얼마큼이나 힘이 센 장수일가?》 하고 매우 궁금히 생각했지요.

그러자 마침 머리 우로 지나 가는 바람을 붙들고 조급히 물었지요.

《여보게 바람, 듣자 하니 산에서 큰 장수가 났다는데 그게 정말인가?》

《정말이고말구.》

《허허, 그럼 장수는 어디서 났다던가? 자네는 하늘이 좁다고 온 세상 안 다니는 데가 없는데 장수가 난 곳을 알겠네 그려.》 하고 꺽다리 장수가 물었습니다.

바람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잠시 생각하더니 《알고말구.》

《그럼 나 좀 알려 주게, 한번 가 보고 싶어서 그러네.》 하고 꺽다리 장수가 또 말했습니다.

《가만 있자, 여기서 열 두 고개를 넘어 가면 쇠'돌산이 있는데 그 산'골짜기에서 장수가 났다 하네.》

《허허, 그럼 그 장수는 나보다 힘이 세든가?》

《그야 모를 일이지, 자네가 어지간히 힘이 세다는 걸 나도 아네만 새로 나온 장수도 여간 아니라데.》

이 말을 들은 꺽다리 장수는 새로 나온 힘장수가 얼마나 힘이 센지 힘내기를 해 볼 생각이 불현듯 불타 올랐습니다.

그는 장'대 같은 큰 키를 겨우 가누면서 덜거덕덜거덕 소리를 내며 어정어정 황새걸음을 걸어 고개'길을 넘어 갔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머나먼 험한 산'길을 걸어 어느덧 열 한 고개를 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고개를 넘으려고 하는데 별안간 맑은 하늘에서 우르렁우르렁 우뢰 소리가 산'발을 울리며 들리였습니다.

《허허, 이게 맑은 하늘에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펴 보다가 산'길섶에 곱게 피여 있는 당개나리꽃을 보고 《당개나리꽃아, 저 요란한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습니다.

당개나리꽃은 방긋 웃으며 《저 소리는 이 산의 힘장수가 일하는 소리랍니다.》

《뭐, 일하는 소리라니?》

《저 쇠'돌산에서 일을 하느라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소리예요.》

꺽다리는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랐지요.

《허허, 대단히 힘이 센 장수로구나!》

하고 마음 속으로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우렁우렁 울리는 소리를 따라서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다니며 힘장수를 찾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 나온 장수 여기 있다.》

하는 산이 허물어지는듯 한 큰 소리가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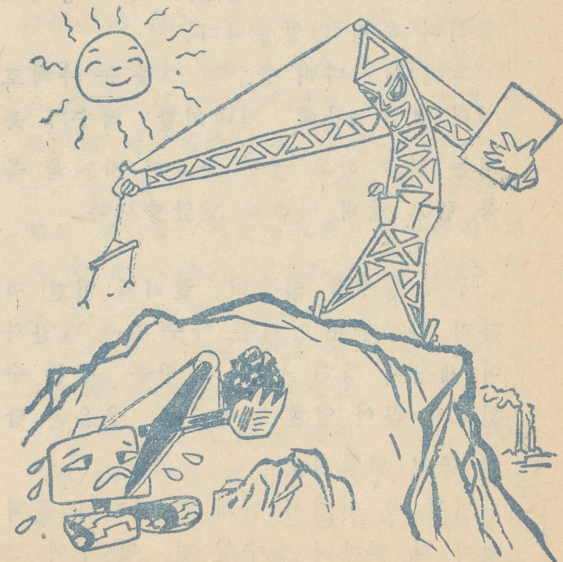
꺽다리 장수는 안개가 자욱히 서린 소리 나는 쪽을 조심스레 살펴 보니 다름 아닌 4 립방 《장백호》 굴착기 무쇠 힘장수였습니다. 그는 키는 자기보다 훨씬 작으나 몸'집은 집채만 하고 다부지게 생긴 걸 보니 아닌 게 아니라 힘깔이나 쓸 것 같았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헛기침을 하며 《나는 임자하고 누가 힘이 센가 힘내기를 해 볼 생각으로 왔소.》 하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무쇠 힘장수는 꺽다리 장수의 말을 듣자 껄껄 호탕스럽게 웃으며 《참 잘 왔소. 나는 요새 용을 써 볼 때가 없어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인데 내 힘을 보일 때가 왔구려.》 하며 거인처럼 떡 버티고 서서 그 육중한 무쇠 바가지로 보란듯이 쇠'돌무지를 파 내는 것이였어요. 길게 뻗은 무쇠 바가지로 산'더미 만큼씩 문쩍문쩍 자국이 나게 파 올리지요.

꺽다리 힘장수는 고개를 기웃하고 찬찬히 바라 보고 있다가

《거 힘이 대단한데.》

하고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였지요.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 봐야 할 일이니까요. 꺽다리는 다시 헛기침을 컹 하고 짓고 나서 자기 힘과 견주어 볼 생각

으로 《대체 한 바가지에 얼마큼씩이나 파 내시우?》 하고 무쇠 장사에게 물었지요.

그러자 무쇠 장사는 《허허, 4 렵방 무쇠 장수의 힘을 통 모르고 있군. 눈으로 보면 알 게 아니요.》 하고 그는 저으기 꺽다리 장수를 얕보는 말씨였지요.

《4 렵방이라, 무게로 치면 8 톤 무게밖에 안 되는군 그래.》

《왜 그것이 작아서 그러슈.》 하고 무쇠 장수는 무척 뽐내는 것이였습니다.

《허허, 고까짓 8 톤 무게나 가지고 뉘 코에 댈라고 그러슈, 내 힘을 한번 보시겠소? 내 앞에서는 큰 소리 못 하리다.》 하고 꺽다리 장수는 팔을 걷어 올리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무쇠 장수의 몇 곱절이나 되는 집채만한 쇠'돌바위를 넝큼 물어 옮기였지요.

《자, 어떠하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을 바라 보던 무쇠 장수는 《아하!》 하고 눈을 크게 뜨며 놀랐지요.

그러다가 무쇠 장수는 《흥, 그래도 땅 파는 힘은 나만 못 할걸.》 하고 좀체로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꺽다리 장수는 그를 눈아래로 내려 보며 《아예 힘내기할 적수가 못 되는 걸.》 하고 껄껄 웃으며 자리를 툭툭 털고 물러 나오고 말았습니다.

무쇠 장수를 쉽사리 물리쳐 버린 꺽다리 힘장수는 이제는 아주 자신 만만하여 세상에 감히 누가 제 힘을 당할 수 있으랴 싶어 얼굴에 만족한 웃음을 담뿍 담고 있었지요.

이런 때 어디서 까치 한 마리가 훌쩍 날아 와 꺽다리 장수의 긴 팔 우에 꼬리짓을 종긋하고 앉았지요.

《꺽다리 장수 아저씨, 아저씬 무엇이 좋아서 혼자 벙글벙글 웃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힘이 제일 센 것이 자랑스러워서 그런다.》 하고 꺽다리 장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지요.

까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 보더니 《세상에는 아저씨보다 더 힘 센 장수가 있는 걸 모르나요?》 하고 깔깔 웃어댔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무안을 당한 것 같아 얼굴이 후끈 붉어지며 《뭐, 나보다 더 힘센 장수가 있단 말이냐?》

《그럼요, 있고말구요.》 하고 까치는 대꾸했지요.

《허허, 대체 내 힘보다 더 센 장수가 또 누구란 말이냐? 내게 좀 대다구.》

하고 꺽다리 장수는 매우 몸이 달아 물였지요.

까치는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있더니 《그 힘장수는 아저씨를 낳은 선반기더러 물어 보면 잘 알 거예요.》 하고는 푸르르 어디론가 날아 가고 말았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으뜸 가는 힘장수로 알았던 꺽다리 장수는 슬며시 부아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놈의 힘장수가 누구란 말이냐!》 하고 어슬렁어슬렁 선반기를 찾아 갔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기계 소리가 요란히 나는 기계 공장의 창문을 기웃이 들여다 보며 소재를 열심히 깎아 내고 있는 선반기를 바라 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모두 자동 선반기라 로동자를 볼 수 없었지요.

(아, 저 선반기는 나를 만들기 위해 나사못이랑, 치차랑, 바퀴를, 깎아 준 열성이 지극한 선반기로구나.) 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도록 아주 믿음직했습니다.

선반기는 꺽다리 장수를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허리를 꾸부정하고 내려다 보며 말했습니다.

《선반기 여보게, 수고하네. 그런데 까치가 하는 말이 세상에 나보다 더 힘이 센 장수가 있다는데 그래 그게 대체 누군가?》

선반기는 이 말을 듣자 허허 웃으며 《임자보다 더 힘 센 장수가 있지, 암 있고말구.》

이 말에 꺽다리 장수는 그만 낯색이 변했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누구란 말인가?》

하고 창문 앞으로 바싹 다가 서며 물였습니다.

《그건 임자를 말들어 낸 압연기를 보고 물어 보게, 그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네.》

하고 선반기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할 수 없이 제강소의 압연기를 찾아 갔지요. 그리고 창 너머로 압연기를 바라 보고 있었지요. 로동자 아저씨들의 무쇠 같은 힘으로 옮겨다 놓은 시뻘건 쇠 불'기둥을 압연기는 엿가락 같이 가늘게 척척 늘여 강철 장'대를 수 없이 만들고 있었지요. 꺽다리 장수는 압연기를 물끄러미 바라 보았습니다.

《저 강철 장'대로 내 몸을 만들어 주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가!》

하고 생각하니 압연기가 어찌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압연기를 보고

《여보게 압연기, 세상에서 제일 큰 힘장수를 자네가 안다데그려?》

압연기는 꺽다리 장수를 반가이 맞으며 《그 힘장수는 임자를 낳게 한 무쇠가 잘 알고 있을 거요.》 하고 다정히 말했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거기서도 자기와 힘내기를 해 볼 힘장수를 찾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꺽다리 장수는 무쇠를 만나러 제철소를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날 수 밖에 없었지요

꺽다리 장수는 걸음을 빨리 걸어 어느새 제철소를 찾아 갔습니다. 큰 산 같이 아득히 보이는 용광로를 바라 보며 무쇠를 찾아 갔지요.

하늘을 뚫을듯이 높이 솟아 있는 웅장한 용광로 앞에 이르렀습니다.

용광로 밑에서 쏟아져 흘러 나오는 이글이글 끓어 오르는 붉은 쇠'물은 아롱아롱 오색 불꽃을 뿌리고 있었지요. 그런 데서 로동자 아저씨들이 용해봉을 휘두르며 일하고 있는 그 늠늠한 모습은 참으로 장쾌했습니다.

쇠'물은 금시 무쇠가 되여 척척 쇠무지에 쌓이였지요.

꺽다리는 금방 쇠'덩이가 되여 김이 무럭무럭 나는 무쇠를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 보며 무쇠가 공업의 왕이라고 생각하니 힘도 자기에 못지 않게 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쇠 동무, 공업에서 염지손'가락으로 꼽히니 힘도 그만큼 세겠네그려.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장수가 임자가 아닌가?》 하고 꺽다리는 물었습니다.

무쇠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손을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지요.

《괜히 당치도 않은 소리 마오. 내가 무슨 힘장수란 말이요. 정말 힘장수는 임자를 낳은 저 붉은 쇠'돌바위를 찾아가 보슈, 그가 잘 알고 있을 거요.》 하

고 옹골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꺽다리 장수는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물러 나오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고 쇠'돌바위를 찾아 산을 넘고 개울 건너 험한 산'길을 황새 걸음을 걸어 쇠'돌산으로 찾아 갔지요.

쇠'돌산의 갱구마다 안전 철모를 쓴 로동자 아저씨가 넓은 가슴팍을 쩍 제끼고 성큼성큼 기운차게 걸어 나오는 그 늠늠한 모습은 마치 고지에서 싸우는 전투 영웅 같이 빛나게 보이였습니다.

쇠'돌 무지가 산'더미 같이 쌓인 가운데서 붉은 쇠'돌바위를 찾아 그의 앞으로 다가 갔습니다.

《쇠'돌바위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장수를 안다더구나!》 하고 다짜고짜 물었지요.

쇠'돌바위는 그를 반색을 해 맞이했지요.

《힘장수 말이냐? 알고 있고말구.》

《정말이냐?》

꺽다리 장수는 아주 대견해서 한 걸음 다가 섰지요. 이제는 제 힘을 보여 줄 뽐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 했습니다.

《그럼 그 힘장수는 누구냐? 날 만나게 해 주렴.》 하고 말했지요.

쇠'돌바위는 아득하게 쳐다보이는 꺽다리 장수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 보며

《그 힘장수는 만나서 뭘 하려나?》

《누가 힘이 센가 힘 내기를 해 보련다.》

이 말을 듣자 쇠'돌바위는 어이가 없는듯 깔깔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네가 그 힘장수를 이겨 낼 것 같으냐? 어림 없는 소리 작작해라.》

《길고 짧은 것은 대 보아야 알지, 어서 두 말 말고 대 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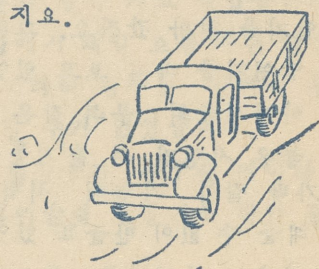
쇠'돌바위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허허 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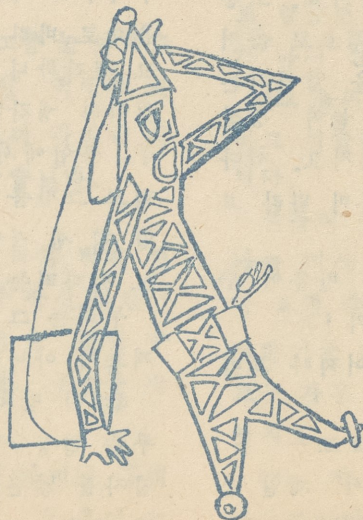
《저 갱구에서 가소링차를 운전하고 힘차게 나오는 로동자 아저씨를 보아라. 그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장수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 저 로동자 아저씨가 힘장수라구.》

《그래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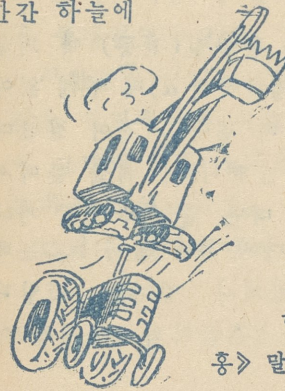
꺽다리 장수는 그 로동자 아저씨를 찬찬히 바라 보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아도 큰 힘을 쓸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꺽다리 장수는 저으기 안심을 하였지요.

《저 로동자 아저씨가 힘장수라면 한 번 맞서 볼만 하네.》

쇠'돌바위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 했습니다.

《꺽다리야, 너무 주제 넘은 생각 말어라. 정말 로동자 아저씨의 힘을 네 눈으로 기어코 보아야 믿어지겠니.》

하고 쇠'돌바위는 로동자 아저씨의 그 힘이 얼마나 큰가 그 본때를 보여 줄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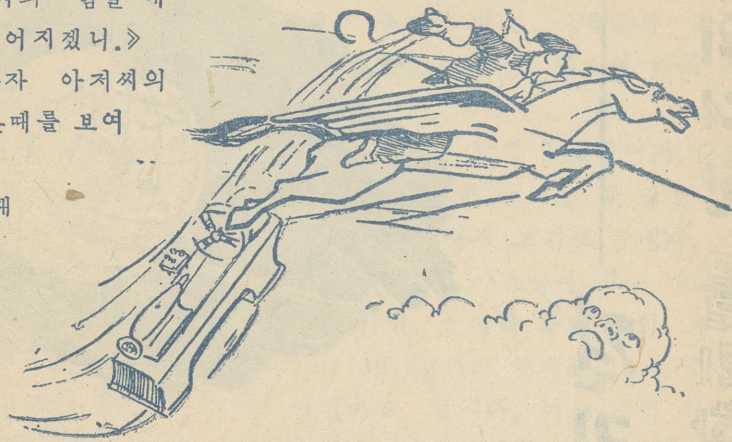
쇠'돌바위는 공중에다 대고 큰 소리로

《천리마 장수, 빨리 좀 나오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별안간 하늘에 밝은 빛이 눈부시게 찬란히 비치고 《호호홍》 말 우는 소리가 하늘을 가를듯한 우뢰 소리처럼 크게 들리였지요. 그 소리에 꺽다리는 그만 겁을 먹고 벌써 기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날개 돋친 천리마를 탄 로동자 아저씨가 무쇠 마치를 휘두르고 검은 구름을 뭉게뭉게 피우며 보일락말락 질풍 같이 내달아 왔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앞을 휙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바삐 일하러 가는 사람을 왜 부르오?》 하는 소리가 우뢰 같이 큰 소리로 메아리쳐 들리였지요.

그 놀랍고 무서운 기세에 꺽다리는 그만 뒤로 훌렁 나자빠지고 말았지요.

꺽다리 장수는 힘을 견주어 볼 생각은 고사하고 그 앞에서 어물거리다간 맥도 못 출 것 같아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뺑소니를 치고 말았지요.

꺽다리 장수는 부질없는 생각을 했다고 마음 깊이 뉘우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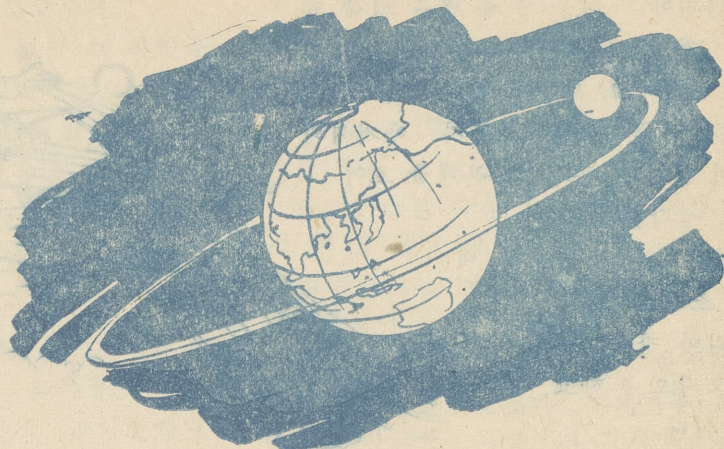
자기를 힘장수로 키우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성을 다 기울린 숱한 로동자 아저씨들의 그 큰 힘, 그 힘이 바로 천리마 장수의 나래치는 힘이라 생각할 때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천리마 장수의 나래치는 힘! 그 힘은 바다도 가로막고 산도 떠 옮기는 큰 힘! 로동자 아저씨들의 이 지혜로운 힘이 쇠'물을 녹이고 기계를 만들고 또 그 기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 힘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아하, 세상에서 가장 큰 힘장수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천리마 장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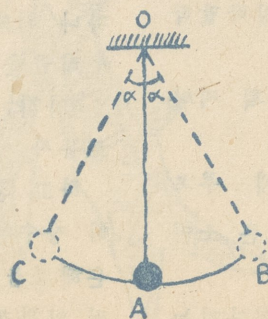
하고 혼자 웨쳤습니다. 그리고 꺽다리 장수는 로동자 아저씨들의 로동의 은혜로움을 생각하고 더 많이 땀을 흘려 일하겠다고 다짐하며 건설장으로 돌아 갔지요.

위대한 물리학자 갈리레이

평양 사범 대학 학사 권 채 복

위대한 물리 학자이며 력학자인 갈릴레이는 1564년 2월 15일, 이태리의 항구 도시인 피사라는 곳에서 태여났습니다.

갈릴레이는 어릴 적부터 무엇을 관찰하고 실험해 보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는 물리와 수학에 아주 많은 취미를 가졌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벌써 열 여덟 살 나는 해(피사 대학생 시절)에 바람에 흔들거리는 남포등을 유심히 바라 보다가 마침내 유명한 하나의 물리 법칙을 발견하게까지 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흔들이의 동시성에 관한 법칙》입니다.

갈릴레이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자주 보면서도 거기에 무슨 법칙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물체가 흔들릴(진동) 때 기울어지는 각도(그림 1에서 α)에 관계 없이 한 번 진동하는 데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성질을 알아 냈습니다. 례를 들어서 (그림 1) B에서 떠난 물체가 A를 지나서 C에 왔다가 다시 B에 돌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언제나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질을 《흔들이의 동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레이 이전의 사람들은 어느 이름 있는 학자들이 한 번 말한 것이면 아무런 실험도 없이 그 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그것을 하나하나 실험해 보고 옳은 것은 믿고 틀린 것은 반대하였습니다.

옛날 희랍의 유명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2~322년)가 내놓은 것들 중에는 실지 사실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 락체 (자유로 떨어지는 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 kg짜리의 돌과 10 kg짜리의 돌을 한 곳에서 같이 떨구면 10 kg짜리 돌은 1 kg짜리 돌보다 10 배나 무겁기 때문에 10 배 빨리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놓은 말은 갈릴레이가 살고 있던 시기까지 약 1,9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만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릴레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과는 달리 모든 물체는 무게에 관계 없이 같은 조건에서는 꼭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믿지 않는 갈릴레이를 나쁘다고 하면서 심지어 그더러 허튼 소리를 한다고 머저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조금도 수그러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증명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실지 보여 주기 위해 55 m나 되는 높은 탑에 올라 갔습니다. 이 탑은 지반이 약간 무너 앉아서 꼭대기가 약 5 m 가량 기울어진 탑입니다. 갈릴레이는 이 탑 꼭대기에서 무게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같이 떨구였습니다. 두 물체는 같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피사 대학의 교원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무들과 함께 갈릴레이가 증명한 것과 같이 모든 물체는 꼭 같이 떨어진다는 것을 실지 보기로 합시다. 서로 힘이 똑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1 kg짜리 물체를 한 사람이 끌어 당기고, 10 kg짜리 물체는 10 명이 끌어 당긴다고 합시다. 어느 것이 더 빨리 운동하겠습니까? 의심할 것 없이 두 물체는 다 같은 속도로 끌리워 올 것입니다. 두 물체가 떨어질 때에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10 kg짜리 물체는 1 kg짜리 물체보다 열 배나 더 무겁다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 당기는 힘이 열 배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즉 10 kg짜리 물체를 끌어 당기는 힘은 10 kg중이고 1 kg짜리 물체를 끌어 당기는 힘은 1 kg중입니다. 그러므로 두 물체는 꼭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갈릴레이의 주장은 옳은 것이였습니다.

1604년 가을부터 갈릴레이는 천문학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 천문학에서는 지구는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이 만들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가운데 두고 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갈릴레이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30 배로 크게 보는 천체 만원경을 만들어 내여 처음으로 달의 겉 구조와 은하계가 별들의 큰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 냈으며 파란의 과학자 코페르닉스가 말한 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였습니다.

갈릴레이의 연구 성과를 안 로마의 법왕은 심지어 갈릴레이를 불러다 놓고 이 때까지 내놓은 것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로나 글로 승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자기 목숨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비겁하게 흰 것을 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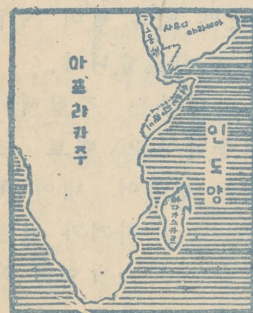
갈릴레이는 끝끝내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끝내 그를 종교 재판에 넘겼습니다. 갈릴레이는 일흔 살의 늙은 몸으로 재판정에 나갔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내놓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리유로 종신 금고형(독방에 가두어 넣고 로력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637년 갈릴레이는 감옥에서 받은 고통과 심한 영양 부족으로 그만 눈 뜨고 보지 못 하는 소경이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결이 멎는 순간까지 자기가 연구한 것을 함께 연구하는 벗들과 제자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갈릴레이가 발견한 여러 가지 법칙들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흔들이의 동시성은 시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시계 추가 흔들리우면서 시계 바늘이 도는 것은 갈릴레이가 발견한 흔들이의 동시성을 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하거나 방송을 하는 것 등은 모두 그가 발견한 진동에 관한 법칙을 리용하여 전파를 만들어 공기 중에 날려 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갈릴레이가 발견한 진동 법칙은 오늘 우리의 과학 기술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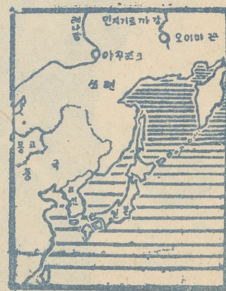
위대한 과학자 갈릴레이는 1642년 1월 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공로는 지구가 영원히 도는 것처럼 인류 력사에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제일 더운 곳과 추운 곳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서 제일 더운 곳과 추운 곳은 어디일가요?

제일 더운 곳은 적도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있는 소말리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가장 더운 때면 기온이 63°C나 올라 간답니다.

제일 추운 곳으로는 씨비리의 《오이먀꼰》인데 여기서는 기온이 령하 67.7°C나 내려 간답니다.

련재 그림

행복의 피리

(4 회)

그림 김 운 현

27) 이윽고 자기 방에 들어 선 그 놈은 벌렁 자빠지기가 바쁘게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이 때다!》하고 생각한 복동이는 야웅이를 살그머니 방안에 들여 보냈다. 소리 없이 행동하는 데는 야웅이가 제일인 것이다.…얼마 안 있어 야웅이는 열'쇠를 입에 물고 나왔다. 그는 들키지 않게 열'쇠줄을 물어 끊고 내 온 것이다.

28) 복동이가 급히 두목의 방에 와 보니 코고는 소리에 창문이 흔들릴 지경이다.

두목이 깊이 잠든 것을 짐작하고 복동이는 야웅이를 문 밖에 남긴 채 방안에 들어섰다. 가만히 궤짝에 다가 서서 복동이는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열었다. 과연 그 속에는 보물 피리가 빛나고 있지 않는가!

복동이는 피리를 보며 기뻐할 사이가 없었다. 어데선가 분명 누가 이 방으로 오는듯 한 발'자국 소리가 쿵쿵 울려 오는 것이다. (이 방을 빨리 벗어 나야 한다.) 두목놈은 금시라도 눈을 뜰 것만 같았다. 복동이가 아직 방을 나서지 못 했는데 그 발'소리가 방 앞에까지 와서 뚝 멎더니 미닫이를 스르르 열지 않는가! 머리카락이 하늘로 곤두섰다. 복동이는 날쌔게 방안 벽에 바싹 붙어 서면서 살을 메워 활 줄을 힘껏 당기였다. 그러자 육중한 놈이 문 밖에 쓰러졌다. 눈여겨 보니 부관놈이였다.

29) 부관놈은 몇 잔 먹은 술'기가 가시면서 몸이 으시시하여 벌떡 일어 났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분명 허리에 찻던 열'쇠가 없지 않는가… 그 놈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열'쇠를 잃어 버리는 날에는 두목놈에게 죽는 판이다. 그 놈은 혹시 취한 김에 두목의 방에 흘리지나 않았는가 해서 허둥지둥 달려 와서 두목 방의 미닫이를 열었던 것이다. 그 놈이 방안에 들어 서려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망을 보던 야웅이가 이악스런 소리를 지르며 달려 들었다. 뜻하지 않던 소리에 흠칠 놀라 뒤를 보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복동이의 화살이 그 놈의 가슴팍을 뚫렸던 것이다. 련'이어 비호처럼 뛰여 나온 복동이가 야무진 주먹으로 턱을 으스러뜨려 놓았다. 그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 하고 푹 쓰러졌다.

30) 복동이는 지체 없이 담장을 향해 내달았다. 벌써 날이 밝아 온다. 빨리 이 소굴을 벗어나야 한다. 이 때 공교롭게 망을 보던 파수놈의 눈에 그만 발견되였다.

그 놈은 《도적이야.》하고 소리를 지르며 종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31) 순식간에 소굴 안에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이 방 저 방에서 고함을 지르며 괴물들이 뛰여 나오기 시작했다. 복동이는 뒤 따르는 놈들을 연거퍼 쏴 눕히면서 담장을 넘어 섰다.

32) 그제야 두목놈도 허둥지둥 뛰여 나오며 《저 놈 잡아라!》 하고 부하들에게 불호령을 쳤으나 어데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알지도 못 하였다. 무턱대고 덤벼치다가 부하놈들에게 보고를 듣고서는 그는 발을 구르며 당장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33) 육중한 대문이 《찌—쿵》 열리고 입을 악문 괴물들이 《우—ㄱ 우—ㄱ》 달려 나왔다. 그들은 제가끔 별의별 무기를 다 들었는데 칼날이며 도끼날 등이 해'별에 번쩍이고 발 밑에서 이는 먼지가 뽀얗게 하늘을 가리울 정도다. 괴상한 소리들을 《꾀—ㄱ 꽥》 지르며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한참 좇아 왔건만 앞길에는 중중 첩첩 험한 산'길 뿐 피리를 찾아 들고 뛰는 복동이는 보이지 않는다. 뒤에서는 다우치는 소리가 연방 들려 왔다. 《이 놈들! 빨리… 빨리 뛰지 못 할가 앙.》

34) 험한 산비탈'길을 몇 굽이나 돌았는지… 복동이는 달리던 것을 멈추고 벼랑을 의지하여 뒤를 돌아 봤다. 그랬더니 자기가 금방 지나 온 굽이돌이를 괴물들이 달려 오고 있지 않는가!

더 생각할 새 없이 복동이는 화살을 련'이어 날렸다. 시위'소리가 핑핑 울리고 화살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귀'전을 울렸다.

백발 백중의 화살에 질겁한 놈들은 감히 굽이돌이를 넘어 오지 못 하고 주춤거렸다.

35) 뒤에서 말을 타고 달려 오던 두목놈은 자기 부하들이 나아가지 못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을 보자 분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쇠뭉치를 휘둘러댔다. 그 놈은 화살도 겁내지 않았다. 그 놈이 날아 오는 복동이의 화살을 막아 치우자 부하놈들은 용기를 내여 《와—》 하고 달려 나오기 시작했다. 복동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활 줄을 당겼지만 그 두목에게는 소용 없었다.

놈들은 승기가 나서 추격해 오는데 이제 그들과 활로 대항해야 보람 없게 되고 보니 복동이도 좀 당황해졌다.

(그렇다면 이 피리를 다시 빼앗기고 만단 말인가? 그럴 순 없다…)복동이는 놈들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강을 넘어서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 강 건너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동이는 달리고 또 달렸다. (복동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호를 기다리라.)

(동요)

자랑 많은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는
자랑 많은 아버지,
오늘도 부릉부릉
자동차 몰고 가요.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아름드리 나무 싣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쉴새 없이 달려 가요.

자랑 많은 울 아버진
많이도 달렸어요.
이제 좀 더 달리면
높은 고지 넘는대요.

7 개년의 높은 고지
함께 넘자 졸랐더니
최우등생 되는 것이
함께 가는 길이래요.

함북도 무산군 허언 농업
학교 단 인민반 4 학년
김 초순

공식을 쉽게 외우는 법

전류에 의하여 도체에 생기는 열량을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은 공식을 씁니다.

$$Q = 0.24\, I^2 R t$$

즉 $I^2 R t$ 줄의 전기 에네르기가 모두 열로 변하면 도선에서 생기는 열량 Q는 $0.24\, I^2 R t$ Cal 로 됩니다.

이 공식을 간단히 기억하자면 《한줄의 전기 에네르기는 없어지고 (0)이사(24) 갔대요. 어디로 갔나 Cal 로 갔대요.》하면 됩니다.

알아두기

별'빛이 총총
전기'불도 총총
새로 지은 기와집들
멋 있다고 총총.

별'빛이 총총
창문'가에 총총
재봉기도 라지오도
부럽다고 총총.

별'빛이 총총
벼낟가리 총총
이 산'골에 벼 낟가리
태산같다 총총.

별'빛이 총총
서로 소곤 총총
로동당의 큰 뜻을
알았다고 소곤소곤.

황해북도 신평군 후라전
중학교 단 손 철호

(《조선 소년》 1963년 12월 1일 부에서 전재)

(수기)

조국을 보고 싶어요

나는 조선 사람이며 나의 조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한번도 조국 땅을 밟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발전하는 조국 모습, 아름다운 조국 산천, 씩씩한 조국의 소년단원 동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입니다. 번영하는 조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으며 조국 건설의 기운찬 노래 소리를 내 귀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국으로 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국에 갔다 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에게는 조국을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마땅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조국을 자유로이 갔다 왔다 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 사람에게만 없단 말입니까!

나의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다 조국에 계십니다.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품'속으로 달려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못 갑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이 자기 조국으로 갔다 왔다 하는데 왜 우리 조선 사람만이 그렇게 안 되는가요? 나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가 조국과의 자유 왕래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으로의 왕래 요청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들이 조국으로 갔다 올 길을 가로막으려는 일본 정부가 밉습니다.

그러나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조국을 마음 대로 갔다 올 수 있는 날이 꼭 온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그 때를 위하여 먼저 공부를 잘 하고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홋까이도 조선 초중급 학교
중급부 1학년 조 미자

겨울철 화분 가꾸기

추운 겨울에는 대부분의 꽃들이 자라는 것을 멈추고 잠 자는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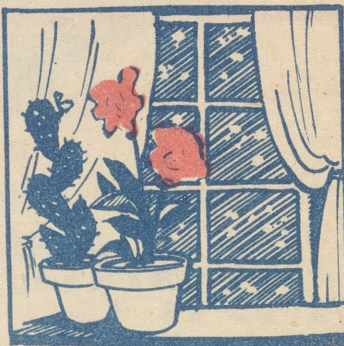
그러므로 잘 가꾸지 않는다면 시들거나 죽어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겨울철에 화분의 꽃들을 어떻게 가꿀가요?

1. 적당한 온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식물도 사람과 같이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춥다고 하여 더퍼 놓고 온도만 높여도 안 됩니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잎으로 수분을 내보내는 것이 많으므로 꽃'잎이 시들거나 마릅니다.

보통 방안의 온도는 18 도 정도가 알맞습니다.

2. 방안의 공기를 항상 깨끗이 해야 합니다. 방안의 공기가 나쁘면 꽃'잎이 누렇게 떡잎이 지거나 또는 자라는 데 지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번 바깥 공기를 갈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 공기를 갈아 넣을 때 화분에 맞바람이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분을 유리 창'가에 놓았을 때는 몹시 추운 날은 방안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창에 성에가 꽃'잎에 묻으면 얼어 죽습니다.

3. 물을 알맞춤 주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여름보다 수분 증발이 적기 때문에 보통 2～3 일에 한 번씩 물을 충분히 주면 됩니다.

물을 매일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물의 량은 화분의 흙의 성질, 꽃들의 특징, 방안의 온도, 방안의 위치 (해'빛이 잘 드는가 안 드는가)에 따라 물을 많이도 주고 적게도 줄 수 있는데 보통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새여 나오도록 주면 됩니다. 그리고 흙을 쥐였다 놓으면 뭉치가 될 정도로 주면 됩니다.

4. 화분에 벌레가 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꽃'잎에 먼지가 끼면 보드라운 헝겊이나 수세미 오이속 같은 데다 미지근한 물을 적시여 잎을 자주 닦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선화, 고무나무, 귤나무 등 잎이 두꺼운 꽃'잎에는 오래 동안 먼지가 끼면 개각충이라는 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벌레가 끄리면 잡은 다음 비누'물로 벌레가 있던 자리를 닦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가꾼다면 베꼬니야, 월계, 앵도 같은 화초들은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한 단위원장의 하루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평양시 창전 중학교 《모범 소년단》 위원장 김 명복 동무의 생활에서

① 명복이의 하루 생활은 아침 체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맡아서 돕는 창전동 35 반 아이들은 하루도 번지지 않고 아침 체조를 합니다. 체조가 끝나면 마을 주변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② 명복이는 늘 다른 아이들보다 30 분은 일찍 학교에 갑니다.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꽃밭도 보고 토끼우리도 돌아 본답니다.

단실에 들어 가서는 단 위원들과 그 날 할 일을 의논합니다.

③ 아이들이 학교에 다 나오면 규찰대 동무들에게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날 소년단원들의 옷차림이 어떠며, 상징은 제대로 달고 다니는가를 단 지도원 선생님에게 보고합니다.

④ 아침 체조를 알리는 신호 나팔이 울립니다. 단에서는 매일 사열 행진을 합니다. 명복이는 분단 별로 대렬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단 대렬 앞에 서서 행진합니다.

⑤ 한 시간 공부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면 단 위원, 분단 위원장들이 단실에 모입니다. 이 때 명복이는 미리 단 위원들과 의논하였던 하루 사업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⑥ 명복이는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점심밥을 먹고 난 뒤에는 분단에 나가 소년단원 동무들과 만납니다. 재미 있는 옛'이야기와 새 소식들도 들려 줍니다. 때로는 인민반 어린 동생들과 함께 재미 있는 군사 유희도 합니다.

⑦ 하루 공부가 끝나면 단 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매일 한 시간씩 분단 별 체육 경기를 합니다. 공부도 잘 하지만 명복이는 축구, 배구, 롱구 등 체육도 다 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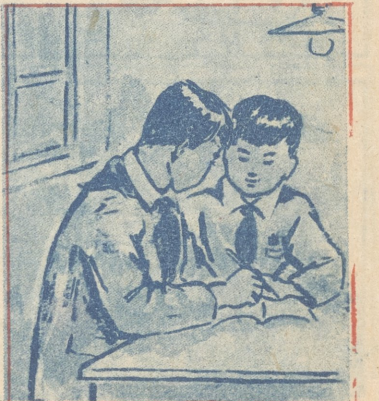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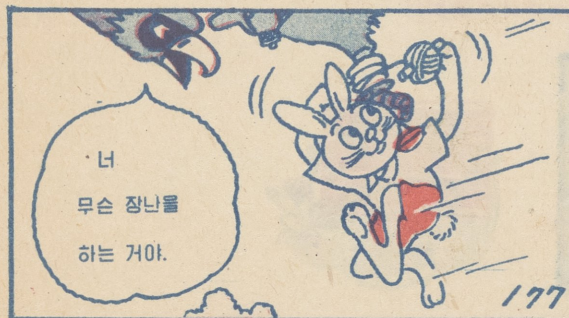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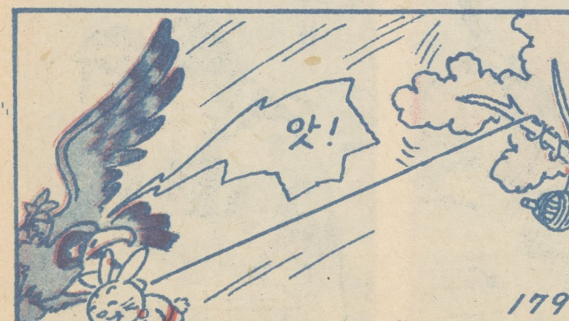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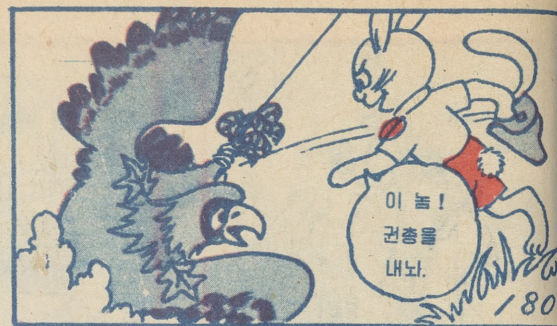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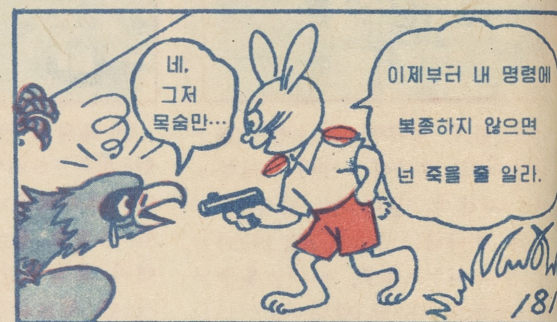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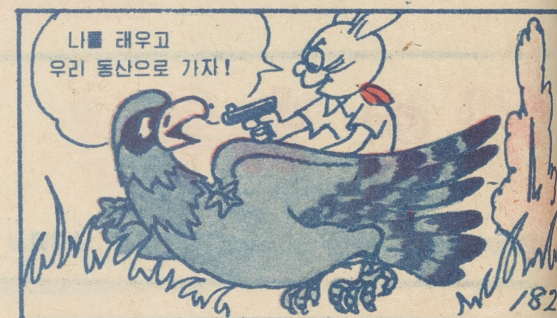
⑧ 과외 활동 시간에 명복이는 한 개의 소조씩을 놀아 봅니다. 그리고는 소조 활동에 대한 의견도 줍니다. 소조 활동에서 모범적인 동무들을 추려서 단 벽보에도 소개하고 《꼬마 방송》에서도 소개하게 합니다.

⑨ 과외 활동 시간이 끝나면 일제히 분단 별로 하루 사업을 총화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 맡은 분단인 17 분단(인민반 3 학년)에 가서 분단 사업을 돕습니다.

⑩ 하루의 생활이 끝나면 단 위원회 계획서와 일지를 놓고 단 위원들이 자기 맡은 분단에 나가 하루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를 총화 짓습니다. 하루 동안 잘 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를 옳게 가려서 평가하여 줍니다.

⑪ 하루 동안 단에서 한 일을 종합하여 잘 된 일, 잘못된 일, 그 날에 있은 기특한 일 등을 단 일지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단 지도원 선생님에게 보고합니다.

⑫ 집에 돌아 온 뒤에도 명복이는 자기가 맡아서 돕는 2 분단 종선 동무와 그 날 배운 것을 복습도 하고 다음 날 배울 것을 예습도 합니다.

때로는 동생들을 데리고 산보도 하면서 다음 날 할 일을 생각합니다.

련재 동화 만화
(제 6 회)
대담한 깡충이
조 병권 지음 원 광수 그림
룔지. 좋은 수가 있다. 내게 비상 용 노끈이 있지.
너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앗!
이 놈! 권총을 내놔.
네. 그저 목숨만…
이제부터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넌 죽을 줄 알라.
나를 래우고 우리 동산으로 가자!
저 놈들이 우리 동산으로 술한 밀려 가누나.
저것이 그 놈들의 동산이다. 이제 깡충이가 올테니 여기서 포위망을 치고 지켜 섰다가 그 놈을 붙들자!
너희들은 사슴 대장 있는 데 가서 항복을 받으라.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신호를 하라, 공격 명령을 내릴테다.
대장실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당장 너희 놈들을 쳐 부시겠다.
어리석은 수작, 싸울려면 싸워 보자. 우리는 모든 준비가 되여 있다.
하하하… 준비가 됐다구. 그럼 좋다!
아니 저게 깡충이가 아닌가!
저 놈을 또 놓쳤구나.
독수리 놈은 죽일 놈이다. 원쑤를 도와 주구.
만세! 만세! 깡충이가 온다.
깡충이다.
이 놈을 묶으라!
자 이것 봐, 우린 원쑤 놈들을 칠려구 이렇게 창을 만들었어.
원쑤 놈들의 대가리를 까부시려고 만든 방망이야.

깡충이가 돌아 왔구나. 우린 부끄러워 어떻게 그를 만나겠니.
우리도 이젠 깡충이처럼 용감하게 살자 어서 가 보자.
얘들아! 큰일 났어.
원쑤 놈들이 또 왔어. 방금 대장실에 들어 갔어.
그 놈을 붙들자 너굴아, 자 무기 창고 열'쇠를 받아라.
난 인젠 보초를 정말 똑똑히 서겠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신을 차리겠어.
됐어. 빨리 무기 창고 문을 열고 동무들에게 무기를 내 주라.
무기창고
문아, 문아, 빨리 빨리 열려라!
무기창고
대장실
손들엇!
수고했다. 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돌아 왔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 동산을 포위하고 있는 놈들을 물리치러 나가자!
전투가 시작되였다.
돌격 앞으로!
저기 깡충이 놈이 있구나.
이 놈!
이 놈!
(누가 먼저 손을 쓸 것인가? 다음 호를 또 기다리라!)

정찰 놀이

이 놀음은 방과 후나 또는 등산, 원족 등을 갈 때 한 개 분단 동무들이 할 수도 있고 한 개 반 동무들끼리 할 수도 있습니다.

1. 주위 살피기

대장은 먼저 정찰병들에게 자기가 어느 길을 따라 어느 산 속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정찰병들은 대장이 지나 갈 방향에 가서 숨습니다. 대장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숨어서 대장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대장은 정찰병들을 발견하려고 주위를 살피며 걸어 가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합니다.

약 10~15 분 정도 걸어 가다가 《모엿!》 신호를 합니다.

모여 온 정찰병들 중 누가 대장의 행동을 잘 살피였는가를 총화하고 칭찬해 줍니다.

2. 신호

대장은 먼저 다음과 같은 휘파람 신호를 정찰병들에게 알려 줍니다.

· · ·	나에게 모엿!
·—·	앞으로 나갓!
—··	누웟!
———	주의!
·——	그 자리에 머물엇!
——·	길 옆에 피하라!

신호를 알려 준 다음 10 분 간 외우게 합니다.

신호를 다 외우면 산 속에 지점을 정해 놓고 여러 곳으로 기여 나갑니다.

이 때 대장은 여러 가지 휘파람 신호를 합니다. 이 휘파람 신호를 정확히 지키면서 목적지까지 온 정찰병이 모범 정찰병이 됩니다.

체육 지식

스키 타기

장 경남

스키, 스케트를 타고 빨리 달려 가는 것을 볼 때 탈 줄 모르는 동무들은 신비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키, 스케트는 배우려고 결심만 하면 누구나 다 쉽게 배울 수 있는 체육입니다.

스키, 스케트를 타면 온 몸이 건강하여지며 추위를 쉽게 이겨 낼 수 있게 단련됩니다. 더우기 용감하고 대담한 마음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도 좋은 체육입니다.

그러면 스키, 스케트를 어떻게 배울가요.

1. 스키 타는 법

(ㄱ) 처음에는 평탄한 곳에서 스키를 신고 걷기 련습을 합니다.

(ㄴ) 다음에는 지팽이를 약간 뒤로 밀면서 앞으로 한 발씩 지치기를 합니다.

(ㄷ) 걷기와 한 발씩 지치기가 능숙해지면 걸어 가다가 두 다리로 함께 지치기 련습을 합니다.

(ㄹ) 이렇게 걷기와 지치기 련습이 잘 되면 약간 경사진 곳에서 지치기 련습을 합니다.

스키를 탈 때에는 늘 무릎과 상반신 (허리 웃부분)을 앞으로 약간 굽히고 지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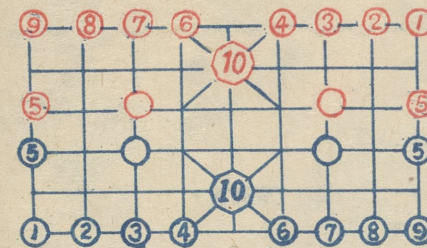
걷기 동작

지치기 동작

어린이 장기

1. 준비할 도구

ㄱ. 장기판 1 개, 말 26 개.

ㄴ. 말은 한 편에 13 개(색을 다르게)인데 큰 말 (대장 《10》) 1 개, 병사 10 개(1, 2, 3, 4;··순으로 수' 자를 쓴다. 그 중 5 자 두 개), 련락병 2 개 (수' 자 없음)

2. 노는 방법

ㄱ. 모든 말은 한 번에 한 눈씩 선을 따라 앞, 뒤, 옆으로 움직인다.

ㄴ. 대장 《10》은 표시한 지휘부 안에서만 움직인다.

ㄷ. 련락병은 대장이나 병사의 길을 방해할 뿐 대장이나 병사를 잡지 못하며 또 잡히우지도 않는다. 그러나 자기 편 련락병이 두 개가 겹쳐 일직선 우에 놓였을 때 같은 선에 놓인 적 련락병을 잡을 수 있다.

ㄹ. 2, 4, 6, 8, 병사는 그 수의 절반 수가 되는 병사를 혼자서 잡을 수 있다. (례: 8자 앞에 적 4자 병사가 놓일 때) 대장은 5자를 혼자서 잡을 수 있다.

ㅁ. 수' 자가 적은 병사는 자기보다 수' 자가 많은 적을 잡으려면 2 개, 3 개의 힘을 합하여 적의 수' 자보다 2 배가 되여야 잡을 수 있다.

(례: 8자를 잡으려면 그 일직선 우에 자기 말 3, 4, 9 병사 또는 9, 7 병사가 가지런히 놓여야 한다.)

ㅂ. 자기 말보다 절반 되는 수의 적 말이 먼저 다가 들면 한 번 물러 섰다가 다음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다가 가며 잡는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자리를 뜨면 못 잡는다.

3. 이기고 지는 것은

ㄱ. 대장이 잡히면 진다.

ㄴ. 대장을 잡을 힘이 없으면 진다.

그러면 스키를 어떻게 만들가요?

1. 스키는 참나무, 벗나무, 자작나무 등 딴딴하고 물을 잘 빨아 들이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스키의 길이는 손을 우로 들고 곧바로 선 때 땅에서 손끝까지의 높이로 하며 너비는 약 10 ㎝, 두께는 약 7 ㎜ 정도로 만듭니다.

스키판 밑의 중심을 통하는 홈은 깊이 2 ㎜, 너비 4 ㎜ 정도로 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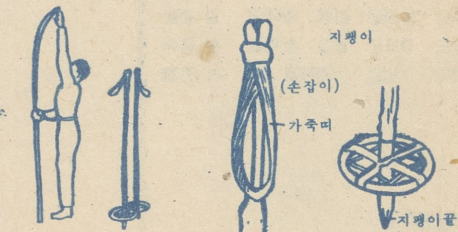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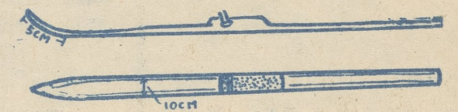
스키의 앞 끝에서 5 ㎝ 정도에는 배'머리 모양으로 우로 휩니다.

앞끝을 휘기 위해서는 2 ~ 3일 간 물에 담그었다가 불에 쪼이면서 천천히 휘면 됩니다. (43° 정도 휜다)

발 디디개는 스키의 중심부에 그림과 같이 가죽으로 자기 발에 맞게 (발이 움직이지 않게) 만듭니다.

지팽이는 선 자세에서 자기 겨드랑 높이의 길이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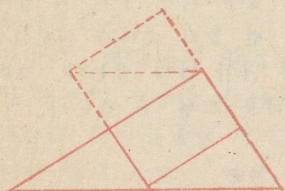
지팽이 끝은 쇠로 뾰죽하게 하고 손잡이는 그림과 같이 손 걸개를 가죽으로 만듭니다.

(중등반)

우리 나라에 있는 유명한 력사 유물들을 아는 대로 적으시오. 그 유물이 어느 지방에 있으며 어떤 유물인가를 밝히시오.

(인민반)

개구리, 개미, 매미는 겨울 한철 어디서 무엇을 먹고 살가요?

8 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반)

(중등반)

물 깊이를 알려면 나무로 만든 자나 바'줄로 재면 된다.

물이 흐르는 속도는 물 우에 종이를 띄워 보면 알 수 있다.

8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인민반)

개성시 개풍군 십탄 중학교 최 선교
황북도 봉산군 탄광 중학교 김 순실
평남도 강서군 송호 중학교 한 금하
평양시 문신 중학교 리 선걸

(중등반)

평양시 강성 중학교 라 대설
황북도 황주군 석산 중학교 김 종일
황남도 벽성군 쌍암 중학교 정 경호
평북도 운전군 대연 중학교 박 춘희

9 호 현상 문제 해답

(인민 반)

이른봄: 진달래꽃, 버들꽃, 할미꽃, 민들레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름: 백일홍, 봉선화, 다리아, 금전화, 홍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가을: 코스모스, 들국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른 아침: 나팔꽃,

대낮: 채송화,

저녁: 달맞이꽃, 분꽃, 박꽃,

(중등반)

산과실: 머루, 다래, 씰광이, 도토리, 들쭉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기름 얻는 나무: 분지, 가래, 잣, 호두, 개암, 동백나무가 있다.

약초: 세신, 삼지구엽초, 금강초롱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버섯: 송이버섯, 참버섯, 싸리버섯 등 여러 가지가 이다.

9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인민반)

평양시 사곡 중학교 리 근수
평남도 강동군 강동 중학교 강 영숙
평남도 개천군 람전 중학교 김 해연

(중등반)

평남도 북창군 광도 중학교 리 옥녀
평양시 외국어 혁명 학원 김 분녀
평양시 신원 중학교 최 화연
함남도 신상군 동천 중학교 김 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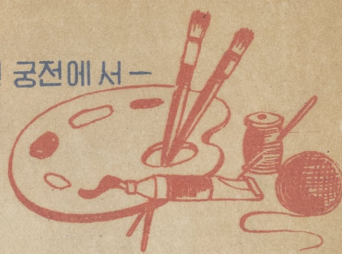
소 년 단 제 11 호 (루계 181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 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10월 21일, 발행 1964년 1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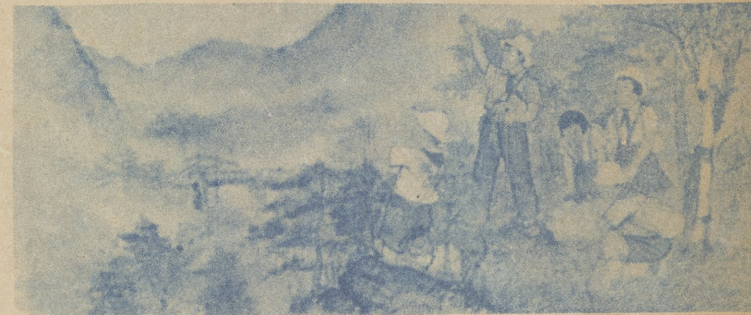
ㄱ-430580 값 35 전

우리들의 솜씨 전람회

—평양 학생 소년 궁전에서—

⬆ 《아동단원》

조각 연구 소조 김 창원

⬆ 《학습을 끝마치고》

조선화 연구 소조 박 정길

《피마 탐사대》 ➡

조선화 연구 소조 원 준

수예 연구 소조원들의 ⬅ 《수예품》 ➡

삐라 공작하는 아동단원)